

# 2024년 4/4분기 주력산업 모니터링 보고서

2025. 2.

조사국 지역경제부  
지역경제조사팀

본 자료는 각 산업의 대표 소재지를 관할하는 8개 지역본부에서 각종 행내외 통계자료, 업체 모니터링 결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자료로서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최근 동향 및 전망에 관한 분기별 모니터링 보고서입니다.

## 차 례

<요 약>

<산업별 모니터링 결과>

|                                       |    |
|---------------------------------------|----|
| I . 반도체 (경기본부 진승민 과장)                 | 1  |
| II . 자동차 (울산본부 신준식 과장, 안주현 조사역)       | 6  |
| III . 석유화학 (광주전남본부 안지연 과장)            | 11 |
| IV . 철강 (포항본부 허성준 과장, 권오익 팀장)         | 15 |
| V . 조선 (경남본부 양정태 과장, 이동훈 조사역)         | 19 |
| VI . 디스플레이 (대전세종충남본부 조광래 과장, 허인지 조사역) | 23 |
| VII . 휴대폰 (대구경북본부 정유정 조사역)            | 28 |
| VIII . 이차전지 (충북본부 김상미 과장)             | 32 |

## <요약>

① 반도체는 2024년 4/4분기 중 중국업체 저가 공세에 따른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향후 고성능 반도체<sub>HBM</sub> 등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의 수요는 견조하겠으나, IT기기 수요회복 지연에 따른 범용 반도체 수요 부진<sup>\*</sup>으로 수출 증가세 둔화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 범용 반도체 수요는 IT기기 구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경우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 반도체 수출금액증가율<sub>이하 전년동기대비</sub>: 24.3/4 +41.4% → 4/4 +34.0%

- 국내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미국 무역정책 변화반도체 관세부과, 對중국 규제 등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② 자동차는 4/4분기 중 국산차 내수판매<sub>-0.7%</sub>가 소폭 감소했으나 수출<sub>+0.4%</sub>이 반등하면서 생산<sub>대수</sub>이 소폭 증가로 전환하였다. 향후 자동차 생산은 신차 출시 패리세이드 등,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내수판매는 완만하게 회복되겠으나 수출이 부진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동차 생산증가율<sub>대수</sub>: 24.3/4 -7.1% → 4/4 +0.6%

- 유럽 주요국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응하여 완성차업체들이 현지생산을 확대할 계획임에 따라 수출이 줄어들 전망이다.

③ 석유화학은 4/4분기 중 생산과 수출이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여전히 업황이 부진을 지속하였다. 향후에도 글로벌 수요 회복 지연과 공급과잉 등 부정적 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업황 개선이 어려울 전망이다.

▶ 석유화학 생산(수출금액)증가율: 24.3/4 +3.9%(+7.5%) → 4/4 +4.0%(+1.9%)

-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은 기존 주력 제품의 경쟁력 약화와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고부가가치 제품<sub>반도체·이차전지 소재</sub> 등과 친환경 제품<sub>생분해 플라스틱</sub> 등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④ 철강은 4/4분기 중 전방산업<sub>건설, 가전 등</sub> 수요 위축, 중국산 저가 철강재 수입 증가 등으로 생산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며, 향후에도 국내 건설경기 침체, 중국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에 따른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철강 생산증가율<sub>생산지수</sub>: 24.3/4 -4.3% → 4/4 -2.8%

- 철강 업황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sub>25%</sub> 관세부과가 예고된 점은 추가적인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⑤ 조선은 4/4분기 중 신규 수주가 감소하였으나 수주잔량이 충분하여 생산<sub>+21.8% → +22.9%</sub>이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향후 조선은 노후 선박 교체,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업황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정책변화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 조선 신규 수주<sub>CGT증가율</sub>: 24.3/4 -15.9% → 4/4 -24.6%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 중인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정책<sub>LNG</sub> 수출 확대 등, 해군력 확충 노력<sub>군함 유지보수·정비(MRO)</sub> 등, 중국 조선소 견제 등은 국내 조선사들에게 사업 확대의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⑥ 디스플레이는 4/4분기 중 신형 스마트폰<sub>OLED 패널</sub> 판매 부진으로 생산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고성능 OLED를 탑재한 IT제품에 대한 수요가 가시화되지 않은 데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향후 업황이 다소 부진할 전망이다.

▶ 디스플레이 생산증가율<sub>생산지수</sub>: 24.3/4 -1.3% → 4/4 -6.7%

-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집중투자하고 있는 고성능 저전력·고화질 OLED 제품의 채용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⑦ 휴대폰은 4/4분기 중 중국내 아이폰 판매가 부진하면서 부품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향후 휴대폰 수출은 AI 기능이 강화된 신제품 스마트폰<sub>갤럭시S25</sub>과 고사양 부품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휴대폰 수출금액증가율: 24.3/4 +47.7% → 4/4 +12.4%(완제품 +28.7%, 부품 +8.8%)

-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은 신제품 판매호조 등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해외 시장에서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 중국내 자국 제품 선호 등은 수출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⑧ 이차전지는 4/4분기 중 전기차용 수출<sub>-71.2%</sub>이 감소세를 이어간 가운데 ESS용 수출<sub>-3.6%</sub>도 줄어들면서 수출 부진이 심화되었다. 2023.3/4분기부터 이어진 수출 감소세는 전기차 수요 둔화<sub>캐콤</sub>과 판매가 하락<sub>핵심광물 공급과잉</sub>이 계속되면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이차전지 수출금액증가율: 24.3/4 -9.3% → 4/4 -25.9%

- 미국과 유럽에서 그동안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해온 정책<sub>전기차 의무화, 친환경 세제 혜택, CO2 배출 규제 등</sub>들을 폐지 또는 완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차전지의 성장세 둔화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우려가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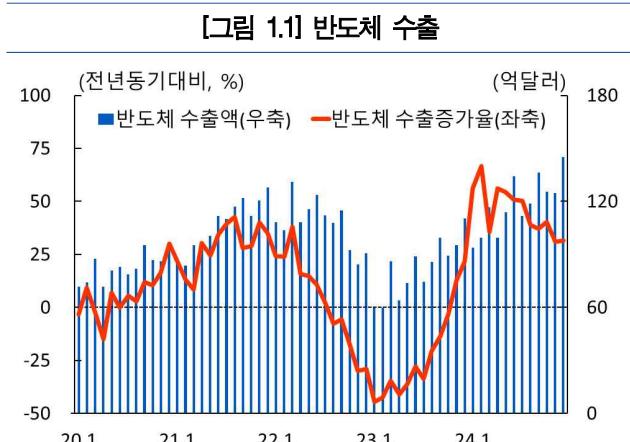
## | 반도체 [경기본부 진승민 과장]

- 2024년 4/4분기 중 반도체 수출은 AI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IT기기 수요 회복 지연, 수출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34.0%)가 축소되었다.
- 2025년 1/4분기 중 반도체 수출은 고성능 반도체 수출 호조가 지속되겠으나, 범용 반도체 수요 부진, 기저효과 등에 따라 반도체 전반의 수출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높은 정책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되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 성장의 하방리스크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동향

1. 2024년 4/4분기 중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4.0% 증가하면서 증가세(전분기 +41.4%)가 전분기에 이어 축소되었다. AI 관련 반도체 경기호조에도 불구하고, PC·스마트폰 등 IT기기 수요 회복이 지연<sup>1)</sup>되고 수출단가가 하락<sup>2)</sup>하면서 메모리반도체<sup>3)</sup>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축소되었다.(메모리반도체 +50.4%, 시스템반도체+9.8%) 2025년 1월 중 수출(잠정)은 전년동월대비 8.1% 증가하면서 수출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다만 2024년 4/4분기 중 반도체 생산은 고성능 반도체 수요, 기저효과<sup>4)</sup> 등에 따라 증가세(+14.1%)가 전분기(+8.8%)대비 확대되었다.

반도체 수출은 전분기에 이어 증가세가 축소



반도체 생산은 전분기대비 증가세가 확대



1) 2024.4/4분기 중 메모리반도체 수출물량은 전분기대비 0.7% 감소(전년동기대비 -16.4%)하였다.(한국무역통계진흥원)

2) 2024.4/4분기 중 반도체 수출물가지수(계약가격기준)는 전분기대비 6.2% 하락(전년동기대비 +25.1%)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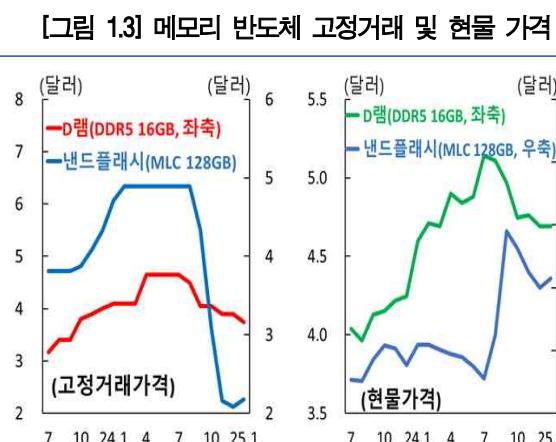
3) 메모리반도체 수출증가율은 전분기(24.3/4분기) 71.8%에서 50.4%로 축소된 반면,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전분기 6.5%에서 9.8%로 확대되었다.

4) 2024년 9월 반도체 생산이 일시적으로 감소(전년동기대비 기준)한 데 따른 영향이다.

**2. 4/4분기 중 메모리반도체(D램 및 낸드플래시) 고정거래가격<sup>5)</sup> 및 현물가격<sup>6)</sup>은 모두 전분기말대비 하락하였다.** IT 전방수요 부진, PC·모바일 제조업체들의 재고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D램의 경우 중국 메모리반도체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따른 영향이 고성능 D램(DDR5)까지 파급되면서 모든 사양에 걸쳐 가격 하락세가 확대되었다.<sup>7)</sup> 낸드플래시는 소비자용 제품(eMMC, UFS 등)을 중심으로 고정거래가격 하락세가 빠르게 확대되었으며, 최근 들어 기업용 제품(eSSD)의 가격하락 압력도 커지는 모습이다.<sup>8)</sup>

**3. 동 기간중 국내 반도체 대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출액(전년동기대비 각각 +38.8%, +74.8%) 및 영업이익(+233.0%, +2,236.1%)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 업체별로는 AI 반도체 실적에 따라 차별화된 흐름을 나타냈다.**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HBM 매출 비중, 범용 메모리반도체 및 파운드리 실적 부진, 선단공정 전환 비용 증가<sup>9)</sup> 등의 영향을 받아 영업이익이 전분기대비 감소하였다. 반면, SK하이닉스는 AI 서버용 제품(HBM, eSSD 등) 수요 강세 지속<sup>10)</sup>으로 역대 실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 메모리반도체 고정거래 및 현물 가격 일제히 하락



자료: DRAMeXchange

#### 국내 반도체 대기업 실적은 AI 반도체 실적에 따라 차별화

[표 1.1] 주요 반도체 기업 실적<sup>11)</sup>

| 상  | 원 | 분류    | 2024 |      |      |      | (단위 : 조원, %) |
|----|---|-------|------|------|------|------|--------------|
|    |   |       | 1/4  | 2/4  | 3/4  | 4/4  |              |
| 삼  | 성 | 매출액   | 23.1 | 28.6 | 29.3 | 30.1 | (38.8)       |
|    |   | 영업이익  | 1.9  | 6.5  | 3.9  | 2.9  | (233.0)      |
|    |   | 영업이익률 | 8.3  | 22.7 | 13.2 | 9.6  |              |
| SK | 하 | 매출액   | 12.4 | 16.4 | 17.6 | 19.8 | (74.8)       |
|    |   | 영업이익  | 2.9  | 5.5  | 7.0  | 8.1  | (2,236.1)    |
|    |   | 영업이익률 | 23.2 | 33.3 | 40.0 | 40.9 |              |

주: 1)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반도체 부문 기준  
자료: 각사 홈페이지

#### 5) D램(DDR5 16GB) 및 낸드플래시(MLC 128GB) 고정거래가격(\$):

|       | 24.3월말 | 6월말  | 9월말  | 10월말 | 11월말 | 12월말 | 25.1월말 |
|-------|--------|------|------|------|------|------|--------|
| D램    | 3.90   | 4.65 | 4.05 | 4.05 | 3.90 | 3.90 | 3.75   |
| 낸드플래시 | 4.90   | 4.90 | 4.34 | 3.07 | 2.16 | 2.08 | 2.18   |

#### 6) D램(DDR5 16GB) 및 낸드플래시(MLC 128GB) 현물가격(\$):

|       | 24.3월말 | 6월말  | 9월말  | 10월말 | 11월말 | 12월말 | 25.1월말 |
|-------|--------|------|------|------|------|------|--------|
| D램    | 4.69   | 4.88 | 4.97 | 4.75 | 4.76 | 4.69 | 4.69   |
| 낸드플래시 | 6.40   | 6.35 | 6.78 | 6.73 | 6.65 | 6.60 | 6.63   |

7)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푸젠진화(JHICC) 등 중국 업체들이 DDR4 생산능력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메모리반도체 업체들(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의 공정 업그레이드(DDR5)가 가속화되면서 최근 공급 증가 압력이 DDR4에서 DDR5로 확대되고 있다(Trendforce)

8) 프리미엄 및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주로 사용되는 eMMC, UFS 등을 포함한 소비자용 SSD의 4분기 가격은 5~10%(잠정)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용 SSD(eSSD) 가격은 4분기까지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계절적 요인에 의한 수요 감소와 재고 가격하락의 영향으로 2025년 1분기 하락 반전(5~10%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Trendforce)

9) 삼성전자에 따르면, 연구개발비 및 선단 공정 확대를 위한 초기 램프업 비용이 증가했다.(삼성전자 4분기 실적발표)

10) SK하이닉스는 4분기에도 높은 성장률을 보인 HBM이 전체 D램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했으며, 기업용 SSD(eSSD) 판매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SK하이닉스 4분기 실적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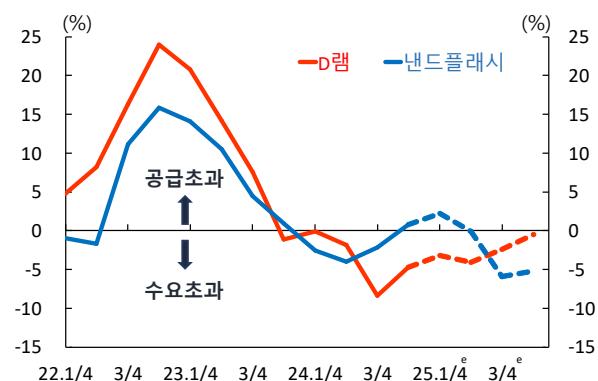
## 향후 전망

4. 2025년 1/4분기 중 반도체 수출은 고성능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범용 반도체 수요 부진, 기저효과<sup>11)</sup> 등에 따라 둔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sup>12)</sup> 반도체 생산도 범용 반도체 생산 수준을 조정하면서 선단 전환<sup>13)</sup>을 가속화하는 등 반도체 사양별 차별화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5. 메모리반도체는 견조한 AI 투자 수요로 고성능 반도체의 양호한 성장세가 이어지겠으나,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성장 흐름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에도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투자가 지속<sup>14)15)</sup>되면서 AI 반도체에 대한 견조한 수요는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범용 메모리반도체 수요 부진, 낸드플래시 시장 초과공급 등으로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확대되고 신형 AI칩 출시 지연<sup>16)</sup> 등의 영향이 일부 가세하면서 성장세는 지난해보다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낸드플래시 초과공급 지속

[그림 1.4] 메모리 반도체 수급 전망



주: 1) 점선은 전망치  
자료: Gartner(24.12월)

### HBM을 제외한 DRAM의 가격 하락세가 확대될 전망

[표 1.2] 주요 DRAM 가격 등락률<sup>17)</sup> 전망

| 분류              |         | '24.4분기 <sup>p</sup> | '25.1분기 <sup>e</sup> |
|-----------------|---------|----------------------|----------------------|
| PC용             | DDR4    | -8~13%               | -10~15%              |
|                 | DDR5    | -3~8%                | -5~10%               |
| 서버용             | DDR4    | -8~13%               | -10~15%              |
|                 | DDR5    | +3~8%                | -3~8%                |
| 모바일용            | LPDDR4X | -13~18%              | -8~13%               |
|                 | LPDDR5X | -5~10%               | -3~8%                |
| 전체<br>(HBM 포함시) |         | -3~8%<br>(+0~8%)     | -8~13%<br>(-0~5%)    |

주: 1) 전분기 대비  
자료: Trendforce(24.12월)

11) 2024년 1/4분기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0.7%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 수준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하였다.

12) 2024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PC, 스마트폰 등 IT기기 판매 부진으로 인해 IT 전방 기업들의 재고조정이 진행중이며, 이러한 추세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SK증권, 유진투자증권) 다만, 중국 정부의 이구환신 정책 추진 가속화에 따른 중국 모바일제품 수요 회복, 세트 업계의 부품 소진 기간 단축 등은 범용 메모리반도체 수요 회복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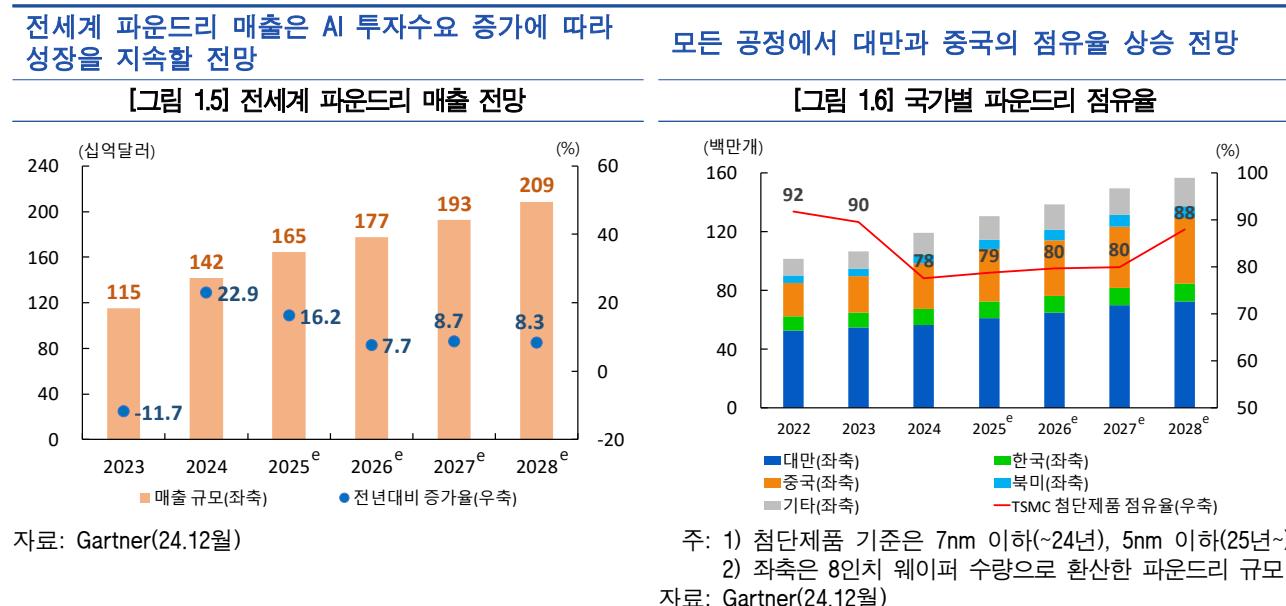
13) HBM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웨이퍼 Capa 잠식 효과가 커지는데, 과거 범용 반도체 대비 1:2.5~3 수준이었던 HBM 웨이퍼 소요량이 HBM4에서는 1:3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하반기 HBM4 출시를 위한 준비가 2025년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삼성증권)

14) 2024년 전 세계 데이터센터 투자는 전년 대비 34.7% 증가하여 468조원을 기록했으며, 2025년에는 15.5% 증가한 53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아마존은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터센터 확장에 100억달러 투자를 결정한 데 이어 조지아주에도 11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올해 6월까지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116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Gartner, 미래에셋증권)

15) 2024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들이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호퍼를 대량 구매하면서 AI 서버 출하량이 전년 대비 46% 성장했다. AI 서버 출하량은 2025년에도 28%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시장규모가 433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Trendforce)

16) 업계에 따르면 블랙웨일 칩에 과열 등 결함이 발생하여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매크로 등이 블랙웨일 주문을 연기하거나 이전 세대 AI 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 파운드리는 글로벌 매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모든 공정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성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단 공정에서 대만 TSMC와 격차가 벌어지는 가운데, 구형 공정에서는 중국 SMIC가 빠르게 추격하면서<sup>17)</sup> 국내 업체의 점유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sup>18)</sup>된다.



**7.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높은 정책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sup>19)20)</sup>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및 미국에 대한 높은 반도체 수출 비중<sup>21)</sup>을 고려할 때, 향후 트럼프 정부의 對중국 규제, 관세인상 등 무역정책 변화로 국내 반도체 산업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의 對중국 첨단반도체 수출 규제<sup>22)</sup>는 예정대로 시행되는 가운데<sup>23)</sup>, 트럼프 대통령이 對미국 무역흑자 상위국 대상 관세 부과<sup>24)</sup> 등 강도 높은 통상정책을 예고하고 있어 국내 반도체 산업은 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정책변화 시기, 강도 및 주변국들의 대응에 따라 국내 반도체 업계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17) 2021년 SMIC 매출은 삼성 파운드리의 30% 수준이었으나 2024년 50%를 넘어서기 시작했다.(유진투자증권)

18) 국내 업체 파운드리 점유율은 9.2%(24년) → 8.8%(25년) → 8.5%(26년) → 7.9%(27년) → 7.7%(28년)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Gartner)

19) 취임 당일 강도 높은 통상 정책(보편적 관세, 對중국 고율 관세 부과 등)을 집행할 것이라는 우려는 해소되었지만, 불공정 무역 관행 등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대규모 對미국 무역흑자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및 보편적 관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20) 트럼프 행정부는 기준에 선언했던 바와 같이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 부과를 개시(2.1일)하였다가 한 달간 유예를 두었으며, 중국에는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개월 내 반도체 등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밝혔다.(블룸버그)

21) 2024년 기준 국내 반도체 수출액의 국가별 비중을 보면 중국(홍콩 포함)이 51.2%, 미국이 7.6%에 이른다.(산업통상자원부)

22) 미 상무부 산업보안국(BIS)은 첨단 AI 기술 및 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대상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AI 반도체 수출통제를 발표하였다.(25.1.13일 발표) 국가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 동맹국(19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는 수출 한도를 부여하고, 우려국에 해당하는 22개국(중국 포함)과 마카오에는 AI 반도체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제3국을 통한 AI 반도체 재수입 및 AI 데이터센터 제3국 건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한국반도체산업협회)

23) 前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바이든 행정부)은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에 대한 국가안보 우려에 여야 모두 공감대가 있다며 對중국 수출 규제가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블룸버그), 로버트 래픈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對중국 첨단기술 수출 규제 준수를 한국에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VOA)

24)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교서(America First Trade Policy)를 통해 2025.4.1일까지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을 조사하고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중국과의 경제·무역 관계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정책을 비롯한 향후 미국의 무역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류형근(2025), “주간 이슈: SK하이닉스의 HBM Capa는 얼마나 늘어날까?”, 삼성증권

삼성전자(2025),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5), “2024년 연간 및 12월 수출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2025), “2024년 연간 및 12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전재환, 구종환(2025), “트럼프 대통령 행정조치의 주요 내용”, 한국은행

최도연 외 5명(2025), “AI, Next Phase?”, SK증권

한국반도체산업협회(2024), “KSIA ISSUE REPORT”

한국반도체산업협회(2025), “KSIA ISSUE REPORT”

Joseph Unsworth (2024), “Forecast: NAND Flash Market Statistics, Supply and Demand, Worldwide, 2021-2028, 4Q24 Update”, Gartner

Shrish Pant (2025), “Forecast: DRAM Market Statistics, Supply and Demand, Worldwide, 2021-2028, 4Q24”, Gartner

SK하이닉스(2025),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자료”

Thomas Chiang, Yashika Goyal (2024), “Forecast: Semiconductor Foundry Revenue, Supply and Demand, Worldwide, 4Q24 Update”, Gart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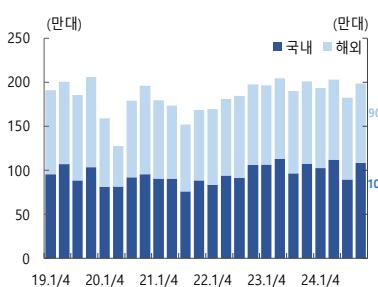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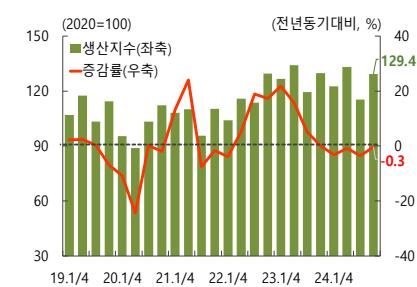
## II 자동차 [울산본부 신준식 과장, 안주현 조사역]

- 2024년 4/4분기 중 자동차 생산은 내수(-1.9%, 대수기준, 전년동기대비)가 국산차를 중심으로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수출(+0.4%, 대수기준)은 파업, 폭설 등으로 인한 생산 차질에도 불구하고 유럽 및 중동지역에 대한 판매 증가로 늘면서 전체적으로는 증가(+0.6%)로 전환하였다.
- 2025년 1/4분기 중에는 내수가 지난해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신차출시, 하이브리드차 수요 지속,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수출은 견조한 북미 수요에도 불구하고 유럽 판매 부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강화에 대응한 현지생산 확대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최근 동향

1. 2024년 4/4분기 중 국내 자동차 생산(대수)은 파업, 폭설 등으로 인한 생산 및 부품 공급 차질<sup>25)</sup>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소폭 증가로 전환<sup>26)</sup>(+0.4%)하고 국산차 내수판매 부진이 완화<sup>27)</sup>되면서 전년동기대비 소폭 증가(+0.6%)하였다. 차종별로는 상용차(-30.7%, 비중 5.3%)는 생산 부진이 지속<sup>28)</sup>되었으나 승용차(+3.2%, 비중 94.7%) 생산이 증가하였으며, 가동률(109.7)도 장기평균(109.3)을 소폭 상회하였다. 다만 자동차산업 생산지수(129.4)는 소폭 감소(-0.3%) 하였다.

#### 자동차 생산대수 소폭 증가      가동률지수도 장기평균 소폭 상회      자동차 생산지수는 소폭 감소

[그림 2.1] 자동차 생산대수<sup>1)</sup>[그림 2.2] 자동차산업 가동률지수<sup>1)</sup>[그림 2.3] 자동차산업 생산지수<sup>1)</sup>

주: 1) 해외생산은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50% 이상이거나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주: 1) 자동차부품 포함  
2) 최근 10년 평균  
(2015.1/4분기~2024.4/4분기)  
자료: 통계청

주: 1) 자동차부품 포함  
자료: 통계청

25) 자동차 부품업체 동희산업 화재(10월), 현대 트랜시스 파업(10~11월), 폭설로 인한 기아차 화성공장 가동 중단 (11.28~12.3일), 부품사 납품지연, 금속노조 파업(12월) 등

26) 자동차 수출대수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2024년 1/4분기 +0.6 → 2/4 +5.7 → 3/4 -5.1 → 4/4 +0.4

27) 국산차 내수판매(%), 전년동기대비): 2024년 1/4분기 -11.7 → 2/4 -12.4 → 3/4 -4.0 → 4/4 -0.7 <24년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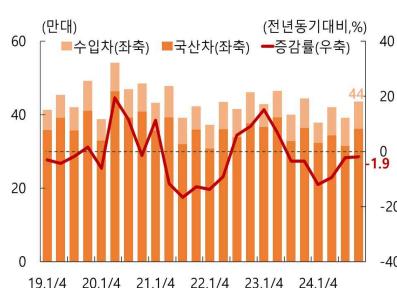
28) 경기 부진에 따른 구매심리 위축 및 인기차종(경유모델) 단종으로 연중 내수판매가 부진하였으며, 하반기 중 상용차 수출도 감소하면서 생산이 감소하였다. 상용차 생산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2024년 1/4분기 -2.3%, 2/4분기 -14.2%, 3/4분기 -20.1%, 4/4분기 -30.7%를 기록하였다.

**2. 자동차 내수판매(대수)는 경기둔화 우려,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9% 감소하였으나 신차효과와 하이브리드차 판매 호조에 힘입어 감소폭은 축소<sup>29)</sup>되었다.** 수입차(-7.7%, 비중 17.1%)는 소비심리 위축<sup>30)</sup>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였으나, 국산차(-0.7%, 비중 82.9%)는 견조한 신차수요<sup>31)</sup>, 하이브리드차 판매 증가<sup>32)</sup> 등으로 부진이 완화되었다.

**3. 수출(대수)은 북미 이외 지역을 중심으로 소폭(+0.4%) 증가하였으나, 수출단가 하락<sup>33)</sup>으로 수출액은 감소세(-3.5%)를 이어갔다.** 지역별로 보면, 북미지역(판매대수 -6.4%, 수출액 -13.4%)으로의 수출은 기저효과<sup>34)</sup>, 부품공급 차질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유럽(판매대수 +11.6%, 수출액 +1.6%)<sup>35)36)</sup> 및 중동지역(판매대수 +24.1%, 수출액 +16%)<sup>37)</sup>으로의 수출은 중견업체(KGM, 르노코리아)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친환경차 수출(-11.0%)은 감소 폭이 확대되었다. 하이브리드차 수출(+51%)은 큰 폭 증가하였으나, 전기차 수출(-40.9%)은 전기차 캐즘 및 현지생산 확대<sup>38)</sup>로 크게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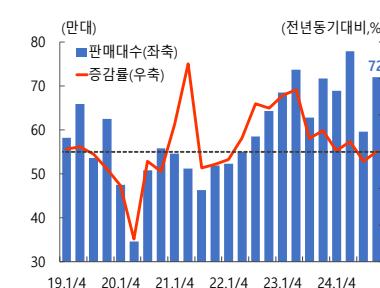
#### 완성차 내수 부진 완화 흐름 지속 완성차 수출 소폭 증가

#### 자동차산업 수출액은 감소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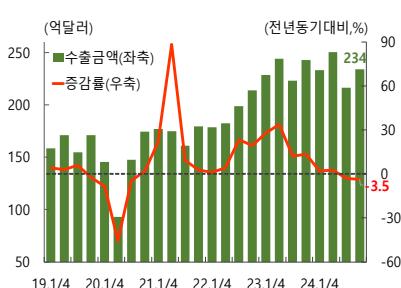
[그림 2.4] 완성차 내수판매<sup>1)</sup>

주: 1) 국산차 및 수입차 합산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그림 2.5] 완성차 수출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그림 2.6] 자동차산업 수출<sup>1)</sup>

주: 1) MTI코드 741, 742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9) 자동차 내수판매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2024년 1/4분기 -11.9 → 2/4분기 -9.5 → 3/4분기 -2.3 → 4/4분기 -1.9

30) 2024년 말 들어 경기둔화 우려 및 정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현재경기판단CSI(2024년 11월 70 → 12월 52)와 소비 지출전망CSI(109 → 102)가 크게 하락하는 등 소비심리가 위축되었다.

31) 2024년 4/4분기 중 르노코리아의 그랑콜레오스 HEV(9월 정식판매 시작)가 약 1.7만대, KGM의 액티언(8월 정식판매 시작)이 2.6천대 판매되었다.

32) 하이브리드차 내수판매(만대): 2024년 1/4분기 11.2 → 2/4분기 11.6 → 3/4분기 11.5 → 4/4분기 15.3

33) 수출단가 추이(\$): 2023년 12월 23,994 → 2024년 10월 22,849 → 11월 22,494 → 12월 21,734

34) 2023년 4/4분기 중 북미지역으로의 자동차 수출은 총 451,351대로 역대 4/4분기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

35) 스페인, 헝가리, 카자흐스탄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2024년 4/4분기 중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1%, +96.5%, +81.1%를 기록하였다.

36) 다만 유럽 내 주요국 경기부진 등으로 유럽 현지공장에서 생산·판매된 자동차 대수는 감소하였다. (2024년 4/4분기 현지생산 증가율: 체코 -10.2%, 슬로바키아 -5.1%)

37) 이스하엘-하마스 전쟁 개전(2023년 4/4분기) 직후 급감했던 이스라엘 수출이 회복되며 전년동기대비 237.4%(약 1.3 만대) 증가하였다.

38) 기아차는 2024년 3/4분기 미국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 공장에서 EV9을 처음 출고(총 21대)한 이후 4/4분기에 출고량을 확대(총 2,510대)하였으며, 현대차는 12월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에서 생산된 아이오닉5를 현지 시장에 판매하였다.(EV9 수출 추이: 2024년 3/4분기 4,202대 → 4/4분기 2,218대, 아이오닉5 수출 추이: 3/4분기 18,531대 → 4/4분기 10,193대)

### <참고> 2024년 4/4분기 중 국내 친환경차\* 생산 및 판매동향

\* 전기차(BEV, PHEV, FCEV 포함#) 및 하이브리드차(HEV)로 구분

# Battery Electric Vehicle(순수 전기차), Plug-in Hybrid EV(높은 배터리 용량의 HEV), Fuel Cell EV(수소연료전지차)

- (생산) 전기차 생산\*(대수)은 전년동기대비 21.1% 감소하였으며, 하이브리드차 생산\*(대수)은 전년동기대비 37.2% 증가

\* 생산중 친환경차 비중<30.3%>: 전기차 9.1%, 하이브리드차 21.2% [내연기관 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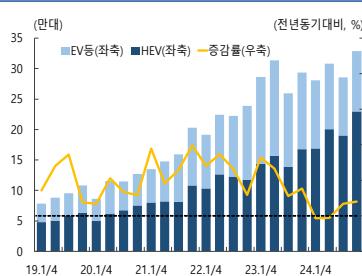
- (내수) 전기차 내수판매\*(대수)는 전년동기대비 0.7% 감소하였으나, 하이브리드차\*는 32.8% 증가

\* 내수판매중 친환경차 비중<43.8%>: 전기차 8.8%, 하이브리드차 35.1% [내연기관 56.2%]

- (수출) 전기차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0.9% 감소하였으며, 하이브리드차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51.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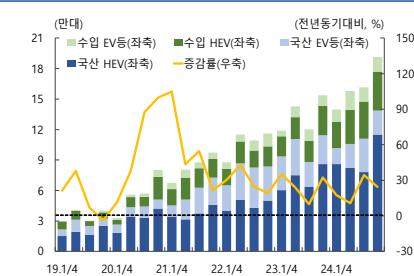
\* 수출액중 친환경차 비중<23.7%>: 전기차 10.6%, 하이브리드차 13.0% [내연기관 76.3%]

[참고 2.1] 친환경차 생산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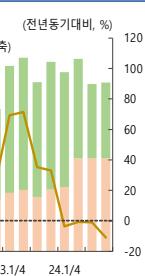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참고 2.2] 친환경차 내수판매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참고 2.3] 친환경차 수출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향후 전망

4. 2025년 1/4분기 중 자동차 내수판매는 지난해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sup>39)</sup>, 인기차종의 신차출시<sup>40)</sup>, 견조한 하이브리드차 수요<sup>41)</sup>,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sup>42)</sup>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에 영향받아 회복 속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39) 2024년 1/4분기 내수판매(전년동기대비 -11.9%)는 고금리 지속, 전기차 수요 둔화 등으로 큰 폭 감소하였다.

40) 2025년 1월 현대차의 신형 팰리세이드 출시 이후 사전계약이 3주 만에 4.5만대를 기록하였으며, 가솔린(25.1/4분기), 하이브리드(25.2/4분기) 모델이 순차적으로 출고될 예정이다. 아울러 2월에는 대형 전기 SUV인 아이오닉9의 사전예약도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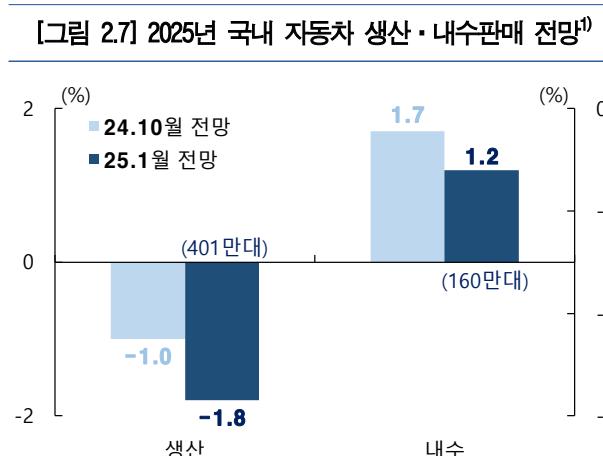
41) 국내 하이브리드차 신규등록대수(만대): 2022년 26.2 → 2023년 37.1 → 2024년 48.2(전년대비 +31.3%)

42)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30% 인하(5%→3.5%)한다고 발표하였다.

**5. 자동차 수출은 하이브리드차를 중심으로 북미 수요가 지속되겠으나, 유럽 판매 부진,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한 현지생산 확대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보면, 북미(비중 60.6%)는 미국의 전기차 도입 속도 조절에 따라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수요<sup>43)</sup>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 무역협정 재협상 가능성<sup>44)</sup> 등에 대응하여 완성차업체들의 현지생산<sup>45)</sup>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동지역으로의 수출 증가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유럽(비중 18.5%)은 주요국 경기부진 지속 및 정치 불안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한 가운데, 배출가스 규제 강화<sup>46)</sup>에 따른 내연기관차 판매 감소, 전기차 수요 둔화<sup>47)</sup> 등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6. 국내 자동차 생산은 완만한 내수판매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전체적으로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시행 가능성에 대응한 현지생산 확대전략도 국내 자동차 생산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연간 자동차 생산 및 내수판매 전망 하향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S&P Global Mobility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강화

[표 2.1] 미 트럼프 정부의 주요 통상·산업정책

| 구 분     | 내 용   |
|---------|---|
| 자국산업 보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캐나다·멕시코 관세 25% 부과(2.4일부터 30일간 유예 중)</li> <li>중국 관세 10% 추가 부과(2.4일)</li> <li>보편관세 부과 및 기존 무역협정 재협상 검토</li> </ul>  |
| 전기차 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차 의무화 목표(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50%) 폐지</li> <li>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기금 집행 중단(50억달러)</li> <li>IRA 보조금 혜택 축소·폐지 검토</li> </ul> |

자료: 언론사 등

- 43) 하이브리드차는 북미시장에서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경쟁사 대비 낮은 가격 및 옵션 경쟁력, 전기차 대체수요에 따른 판매 증가 등으로 양호한 판매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 44)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1.20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과 리스크를 조사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4.1일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는 2018년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철폐(25%→0%) 기한을 기준 2021년에서 2041년까지 20년 연장한 바 있다.
- 45)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공장(메타폴랜트) 가동을 본격화(연간 30만대 생산 가능)하는 한편 미국 전기차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혼류 생산할 계획이다.
- 46) EU는 올해부터 완성차 제조사가 판매하는 신차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 가능 상한선을 약 18% 낮추고, 기준초과 시 1g당 95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47) 다만 주요 완성차업체들이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해 중저가 전기차 모델 판매(캐스퍼EV, EV3, EV6 F/L)를 이어가는 가운데,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인상(24.10월 말)등은 친환경차 판매에 긍정적 요인이다.

## 참고문헌

기아(2024), “기아 2024년 4분기 경영실적”

기아(2024), “2024년 해외공장판매실적”

한국은행(2025), “경제상황 평가(2025년 1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2025), “자동차등록통계월보(2024.10~12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2025), “자동차통계월보(2024.10~12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2024), “2024년 자동차산업 평가 및 2025년 전망”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2025), “2024년 자동차 내수시장 분석”

현대자동차(2024), “현대자동차 2024년 4분기 경영실적”

S&P Global Mobility(2025), “Global Sales and Production Commentary”, January 2025

### III 석유화학 [광주전남본부 안지연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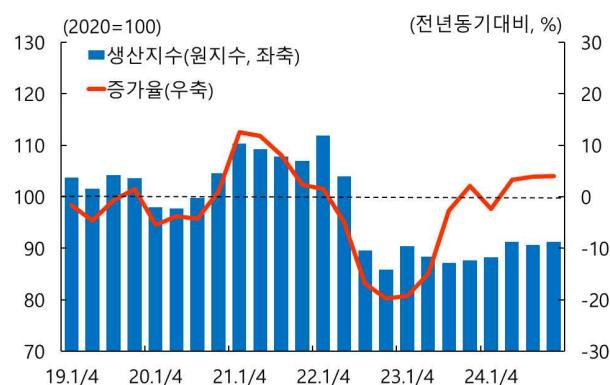
- 2024년 4/4분기 중 석유화학산업은 기저효과 등으로 생산과 수출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인 업황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
- 향후에도 글로벌 제조업 경기 개선 지연 및 공급과잉 등으로 인해 생산과 수출이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부가가치·친환경 제품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추진 중이다.

## 최근 동향

- 2024년 4/4분기 중 국내 석유화학산업 생산은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4.0% 증가하여 3분기 연속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제품별로는 에틸렌 등 기초유분을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sup>48)</sup>하였다. 업황은 일부 석유화학 업체들의 신용등급<sup>49)</sup> 전망이 하락하는 등 부진<sup>50)</sup>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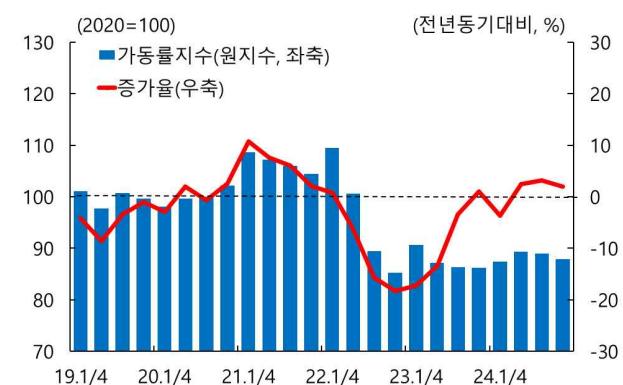
### 석유화학 생산은 증가하고 가동률은 소폭 상승

[그림 3.1] 석유화학 생산지수



자료: 통계청

[그림 3.2] 석유화학 가동률지수



자료: 통계청

- 4/4분기 중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9% 증가하였다. 수출단가가 하락(-3.2%)하였으나, 수출물량이 증가(+5.3%)하면서 수출액이 늘어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국·유럽 등으로, 제품별로는 에틸렌 등 기초유분과 합성고무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였다.<sup>51)</sup>

48) 2024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생산지수 증가율(전년동기대비): 24.1/4분기 +0.2% → 2/4분기 +5.4% → 3/4분기 +6.1% → 4/4분기 +6.3%

49) 국내 신용평가사인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2024년 하반기 중 국내 주요 석유화학 업체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LG화학 AA+/안정적 → AA+/부정적, 여천NCC A/부정적 → A-/부정적)하였다.

50) 2024년 화학제품 제조업 업황실적 BSI: 24.1/4분기 67.7 → 2/4분기 76.7 → 3/4분기 72.0 → 4/4분기 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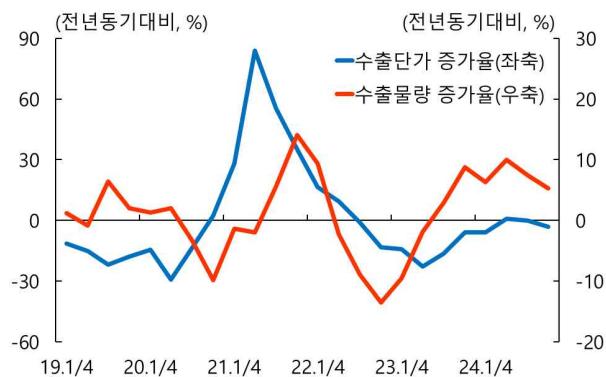
51) 2024년 4/4분기 중 석유화학 제품별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 기초유분 +7.2%, 합성고무 +25.6%

## 석유화학제품 수출 소폭 증가

[그림 3.3] 석유화학제품 수출<sup>1)</sup>

주: 1) 통관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석유화학제품 수출단가는 하락, 수출물량은 증가

[그림 3.4] 석유화학제품 수출 단가<sup>1)</sup> 및 물량

주: 1) (수출액)/(수출물량)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중국, 유럽지역 등에서 석유화학제품 수출이 증가

[표 3.1] 지역별 석유화학제품 수출<sup>1)2)</sup>

|       | 2024년  |         |         | 2024.3/4 |         | 2024.4/4 |         | 25.1월 |         |
|-------|--------|---------|---------|----------|---------|----------|---------|-------|---------|
|       | 수출액    | [100.0] | 479.8   | (5.0)    | 121.5   | (7.5)    | 114.1   | (1.9) | 35.1    |
| 아시아   | [66.8] | 320.7   | (6.2)   | 84.4     | (9.2)   | 81.4     | (3.8)   | 24.2  | (-8.8)  |
| (중 국) | [36.9] | 177.2   | (3.9)   | 47.2     | (9.4)   | 48.3     | (10.9)  | 14.3  | (-1.2)  |
| (동남아) | [18.0] | 86.6    | (12.0)  | 22.3     | (11.8)  | 19.7     | (-5.8)  | 6.0   | (-19.4) |
| 유 럽   | [15.8] | 76.0    | (1.6)   | 18.7     | (14.7)  | 17.1     | (5.0)   | 5.3   | (-22.7) |
| 북 미   | [9.3]  | 44.6    | (12.1)  | 9.0      | (-5.2)  | 6.6      | (-15.6) | 3.0   | (-13.7) |
| 중남미   | [3.8]  | 18.1    | (5.3)   | 4.6      | (10.5)  | 4.1      | (1.9)   | 1.4   | (-3.7)  |
| 중 동   | [2.4]  | 11.3    | (-9.0)  | 2.7      | (-11.9) | 2.9      | (6.3)   | 0.6   | (-37.4) |
| 기 타   | [1.9]  | 9.1     | (-15.8) | 2.1      | (-22.3) | 2.0      | (-24.6) | 0.5   | (-41.8) |

주: 1) MTI 2단위 21(석유화학제품) 기준  
2)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내는 2024년 비중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3. 4/4분기 중 석유화학산업 수익성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석유화학제품 최대 수요처인 중국의 자급률 상승<sup>52)</sup>, 공급과잉<sup>53)</sup> 지속, 고환율로 인한 원가 상승 등으로 국내 주요 업체의 4/4분기 수익성은 부진<sup>54)</sup>한 것으로 나타났다.

52) 중국은 2020년부터 석유화학 생산설비를 본격적으로 증설해 2022년 중 생산능력 1위 국가(에틸렌 기준 생산능력, 20년 32백만톤 → 21년 40백만톤 → 22년 46백만톤 → 23년 52백만톤 → 24년 54백만톤)로 부상하였다. 또한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자급률은 2025년 중 10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53) 2025년 중 전세계 에틸렌 및 프로필렌 증설규모는 각각 1,150만톤, 1,270만톤으로 전년(각각 230만톤, 830만톤)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54) 2024.4/4분기 중 국내 주요 석유화학 업체의 영업이익은 적자(LG화학 석유화학 부문 -990억원 등)를 기록하였다.

## 향후 전망

**4. 2025년 1/4분기 중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생산과 수출이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글로벌 제조업 경기 개선 지연<sup>55)</sup> 및 공급 과잉 등의 영향으로 국내외 석유화학제품 수요는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도 부정적 여건<sup>56)</sup>이 지속되고 있어 국내 주요 업체의 업황 개선<sup>57)</sup>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부가가치·친환경 제품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추진<sup>58)</sup> 중이다.** 나프타를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전통 석유화학 사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데다, 글로벌 환경 규제<sup>59)</sup>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들은 이차전지·반도체 소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과 생분해 플라스틱 등 친환경 제품 개발<sup>60)</sup>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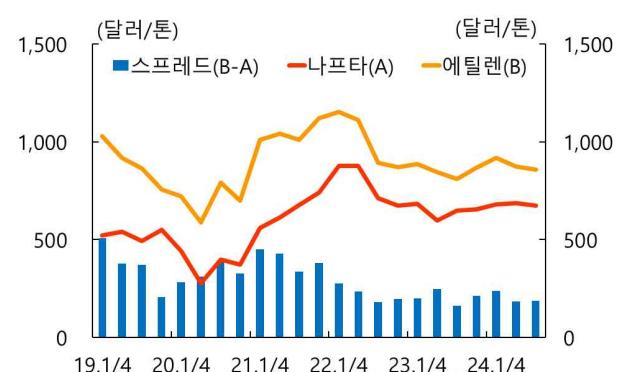
### 화학제품 매출·수출 전망은 하락 흐름

[그림 3.5] 화학제품 제조업 전망BSI



자료: 한국은행

### 수익성지표는 낮은 수준을 지속

[그림 3.6] 에틸렌 스프레드<sup>1)</sup>

주: 1) (에틸렌 가격) - (나프타 가격)

자료: 한국석유화학협회, 산업통상자원부

55) 2024년 상반기 중 개선 흐름을 보이던 글로벌 제조업 PMI가 하반기 들어 기준치(50)를 하회하는 모습이다.(23.4/4분기 49.0 → 24.1/4분기 50.3 → 2/4분기 50.7 → 3/4분기 49.3 → 4/4분기 49.7)

56) 중장기적으로는 중동에서 COTC(Crude Oil To Chemical) 설비가 가동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오만 등은 COTC 공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간 11백만톤 규모로 에틸렌이 생산될 예정이다.

57) 화학제품 제조업 업황전망 BSI: 24.1/4분기 63.3 → 2/4분기 72.7 → 3/4분기 77.3 → 4/4분기 68.7 → 25.1월 64

58) LG화학(전지소재·친환경소재·신약 매출 비중을 2030년까지 57%로 확대 추진), 롯데케미칼(첨단소재·정밀화학 등 매출 비중을 2030년까지 60%로 확대 추진) 등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은 고부가가치·친환경 제품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추진 중이다.

59) UN은 플라스틱 생산·소비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전체 주기에 대한 의무사항 등을 다루는 국제플라스틱협약을 추진 중이다.

60) LG화학은 초고중합도 PVC 전환 및 생분해 플라스틱을 개발 중이다.

## 참고문헌

산업통상자원부(2024), “2024년 연간 및 12월 수출입 동향”

수출입은행(2024), “중동 주요국의 석유 산업 동향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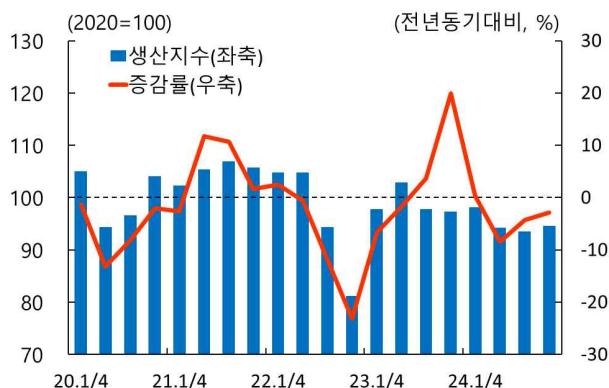
## IV 철강 [포항본부 허성준 과장, 권오익 팀장]

- 2024년 4/4분기 중 철강제품 생산은 감소(-2.8%, 전년동기대비)하였으며, 수출은 경쟁 심화에 따른 단가 하락(-5.4%)에도 불구하고 물량 증가(+10.1%)의 영향으로 증가 (+4.2%)하였다.
- 향후 철강제품 생산은 국내 건설투자 부진, 중국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대외 통상환경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의 경우에는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최근 동향

1. 2024년 4/4분기 중 철강제품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2.8% 감소하였다. 철강제품 수요는 국내 주요 전방산업인 건설·가전 등에서 부진(각각 전년동기대비 10.1%, 7.8%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중국 등 후발국으로부터의 저가 철강재 수입 증가 및 철강제품 수요 부진 등으로 철강제품 출하는 전년동기대비 1.7% 감소하고 재고는 10.5% 증가하였다.

#### 1차 철강제품 생산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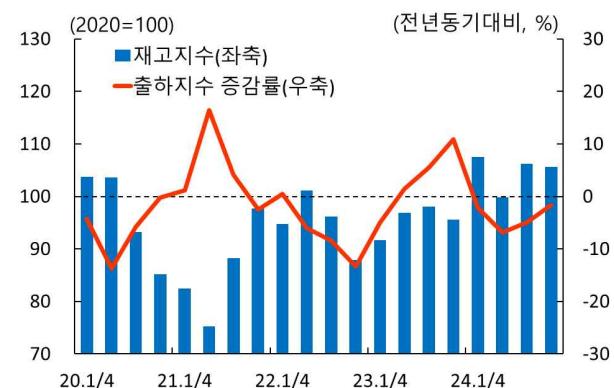
[그림 4.1] 1차 철강제품<sup>1)</sup> 생산지수

주: 1) 1차 철강제품은 슬래브, 블룸, 빌릿 등의 반제품으로 추가 공정을 통해 판재, 봉형강 등의 완제품으로 제작

자료: 통계청

#### 1차 철강제품 출하 감소 및 재고 수준 증가

[그림 4.2] 1차 철강제품 출하 및 재고지수



자료: 통계청

2. 국내 조강<sup>61)</sup>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2.6% 감소하였다. 이는 수익성 감소에 따른 국내 주요 철강사들의 생산량 조절, 주요 철강사의 공장 화재<sup>62)</sup>에 따른 가동률 하락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철강제품의 주재료인 철광석과 유연탄 가격은 하락(각각 전년동기대비 19.2%, 39.3% 하락)하였다.

61) 조강(粗鋼, crude steel)은 강철의 제조공정 중 첫 번째로 나오는 강괴(鋼塊)로, 가공된 철강제품을 만드는 기본 재료가 된다.

62) 포스코 포항공장의 경우 3파이넥스 공장 화재가 발생했던 11월 조강생산량이 1,156천톤으로 10월(1,305천톤)과 12월(1,221천톤)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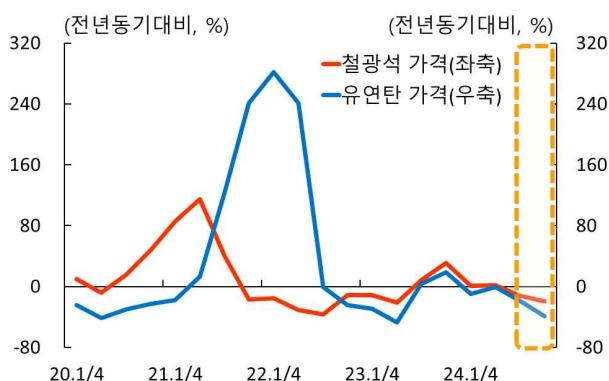
## 국내 조강생산량은 감소

[그림 4.3] 국내 조강생산량 추이



자료: 한국철강협회,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

## 철광석 및 유연탄 가격은 하락

[그림 4.4] 철광석<sup>1)</sup> 및 유연탄<sup>2)</sup> 가격 상승률주: 1) 중국 텐진항 철광석 수입가(CFR, Fe 62%) 기준  
2) 호주 원료탄 수출가(FOB, Australia Premium Low Vol) 기준

자료: 한국광해광업공단

3. 2024년 4/4분기 중 철강제품(MTI 61) 수출(83.2억 달러)은 수출단가의 하락<sup>63)</sup>(-5.4%)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 증가(+10.1%)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하였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16.5%), 일본(-3.8%), 인도(-4.2%) 등으로의 수출물량이 감소하였으나, 기타국가(+23.0%)로의 수출물량은 수출다변화 추진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였다. 수출단가는 중국 및 일본산 철강제품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5.4% 하락하였다. 주요국으로의 수출금액은 중국(-4.1%), 일본(-3.7%), 인도(-9.9%) 등에서 감소하였다.

## 철강제품 수출물량은 증가, 수출단가는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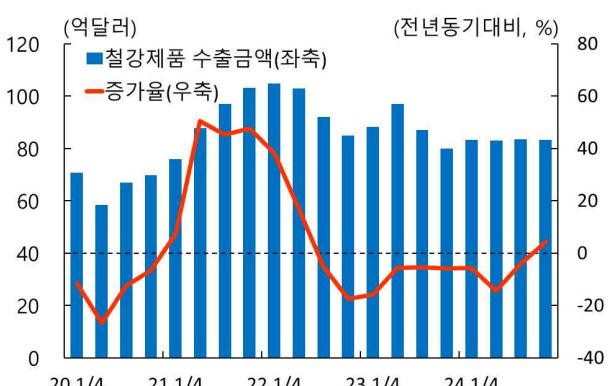
[그림 4.5] 철강제품 수출물량 및 단가<sup>1)</sup> 추이

주: 1)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금액 및 수출물량 기준, 자체 시산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철강제품 수출금액은 증가

[그림 4.6] 철강제품 수출 추이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63) 다만, 중국으로의 수출단가는 상당폭 상승(+14.7%)하였다.

전체 수출금액은 증가하였으나 주요 수출 대상국별 철강제품 수출금액은 중국·미국·일본·인도 모두 감소

[표 4.1] 2024.4/4분기 주요 수출 대상국별 철강제품 수출 증가율

|      | 전체   | 중국    | 미국   | 일본   | 인도   | 기타   | (전년동기대비, %) |
|------|------|-------|------|------|------|------|-------------|
| 수출금액 | 4.2  | -4.1  | -0.3 | -3.7 | -9.9 | 11.2 |             |
| 수출물량 | 10.1 | -16.5 | 1.9  | -3.8 | -4.2 | 23.0 |             |
| 수출단가 | -5.4 | 14.7  | -2.2 | 0.1  | -5.9 | -9.6 |             |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및 자체 시산

## 향후 전망

**4. 향후 철강제품 생산은 국내 건설투자 부진<sup>64)</sup>, 중국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sup>65)</sup>.** 환율상승으로 철강업체의 원가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철강제품 생산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등의 통상정책도 철강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5. 철강제품 수출은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단가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다소간의 등락은 있겠지만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하방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물량은 환율상승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각 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도 등 대외 통상여건에 따른 영향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64) 국내 건설투자는 2025년에 전년대비 1.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4.11월)

65) 세계철강협회는 글로벌 철강 수요가 2025년 1.2% 증가,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철강 수요는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2024.10.14.)

## 참고문헌

동국씨엠(2024)·동국제강(2024), “2024년 4분기 경영실적”

스틸데일리(2024), 신문자료 및 DB센터

키움증권(2024), “Steel&Metal Weekly” 및 “4Q24 철강금속 프리뷰”

통계청(2024), “산업활동동향”

포스코홀딩스(2024), “2024.4Q 실적발표 기업설명회”

한국광해광업공단(2024), “주간 광물가격 동향” 및 “월간자원 Insight”

한국무역협회(2024),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한국은행(2024),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철강협회(2024), “월간 철강보”

현대제철(2024), “2024년 4분기 경영실적설명회”

World Steel Association(2024), “Crude Steel Production”

World Steel Association(2024), “Worldsteel Short Range Outlook October 2024”

## V

## 조선 [경남본부 양정태 과장, 이동훈 조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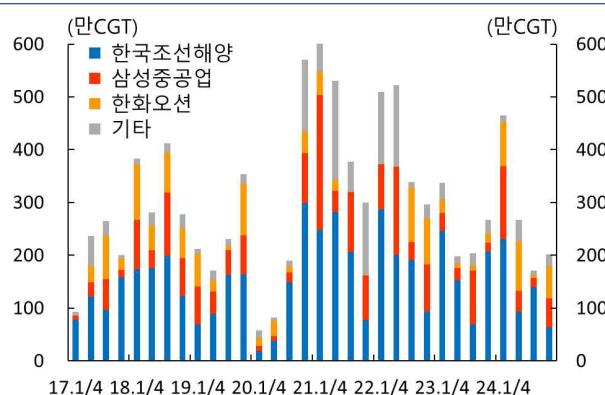
- 2024년 4/4분기 중 국내 조선사의 신규 수주는 LNG선, 가스선, 유조선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24.6%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수주잔량이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선박 생산 및 수출은 호조세를 지속하였다.
- 향후 조선업은 경기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선별 수주가 이어지고 수익성도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 동맹국과의 협력 증대 및 대중국 견제에 따른 반사이익 등은 국내 조선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숙련근로자 부족,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의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 최근 동향

1. 2024년 4/4분기 중 국내 조선사의 신규 수주는 201.3만CGT로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선별 수주가 이어졌으나 전년동기대비로는 24.6% 감소하였다.<sup>66)</sup> 이에 따라 국내 조선사의 시장점유율도 2023년 4/4분기 22.0%에서 18.7%로 하락하였다. 국내 조선사의 선종별 수주를 살펴보면, LNG선(25.7만CGT, 전년동기대비 -85.0%), 가스선(33.6만CGT, -41.9%), 유조선(18.1만CGT, -37.5%) 등이 감소하였다. 반면 컨테이너선(114.7만CGT)의 경우 홍해 사태 장기화에 따른 수요 증가 및 신조선가 상승 등으로 2024년 2/4분기 이후 신규 수주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 국내 조선사의 신규 수주량은 전년동기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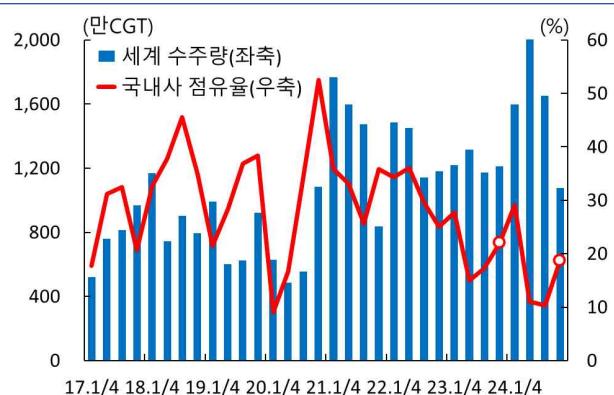
[그림 5.1] 국내 대형 조선사 신규 수주량



자료: Clarksons

## 국내 조선사의 신규 수주 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하락

[그림 5.2] 글로벌 선박 수주량 및 국내사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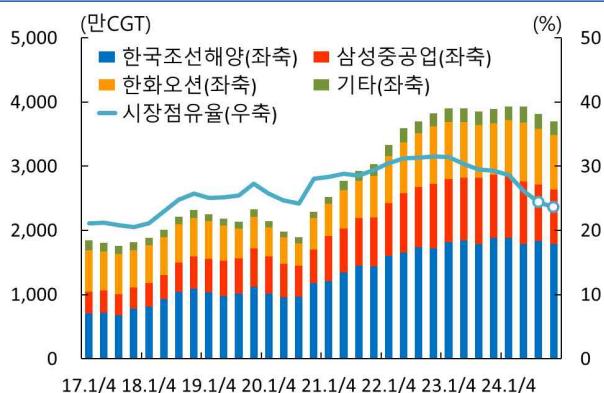
자료: Clarksons

66) 4/4분기 글로벌 신규 수주가 전년동기대비 11.2% 감소한 가운데 국가별 신규 수주는 중국 4.6%, 일본 -72.0%를 기록하였다.(Clarksons)

**2. 2024년 4/4분기 말 국내 조선사 수주잔량은 3,702.4만CGT로 전분기(3,810.6만CGT)대비 2.8% 감소하였다.** 선종별 수주잔량은 LNG선이 1,778.8만CGT로 가장 높은 비중(48.0%)을 차지하며, 이어 컨테이너선(677.4만CGT, 18.3%), 가스선(363.0만CGT, 9.8%), 유조선(350.6만CGT, 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국내 조선사 수주잔량 및 시장점유율은 전분기대비 감소

[그림 5.3] 국내 조선사 수주잔량 및 시장점유율



자료: Clarksons

#### 수주잔량은 LNG선, 컨테이너선, 가스선 등의 순

[표 5.1] 국내 조선사 4/4분기 말 주요 선종별 수주잔량

|                    | LNG선    | 컨테이너선 | 가스선 <sup>2)</sup> | 유조선 <sup>3)</sup> |
|--------------------|---------|-------|-------------------|-------------------|
| 국내전체               | 1,778.8 | 677.4 | 363.0             | 350.6             |
| 한국조선 <sup>1)</sup> | 730.1   | 405.5 | 300.9             | 215.9             |
| 삼 성                | 518.5   | 149.1 | 27.6              | 18.1              |
| 한 화                | 530.2   | 73.8  | 34.5              | 30.2              |

주: 1)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현대삼호 통합법인  
2) LPG, 암모니아, LCO2 등 운반선(LNG 제외)  
3)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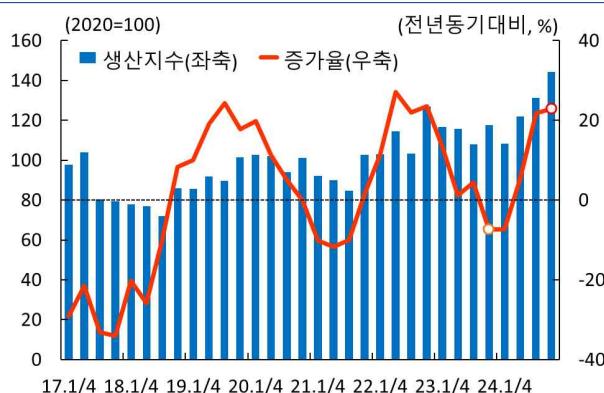
자료: Clarksons

#### 3. 2024년 4/4분기 중 선박 생산은 호조세를 지속하면서 전년동기대비 22.9% 증가하였다.

4/4분기 중 선박 수출은 2023년 4/4분기 중 큰 폭 상승(58.7%)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4.3%)하였으나 76.4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였다.

#### 선박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큰 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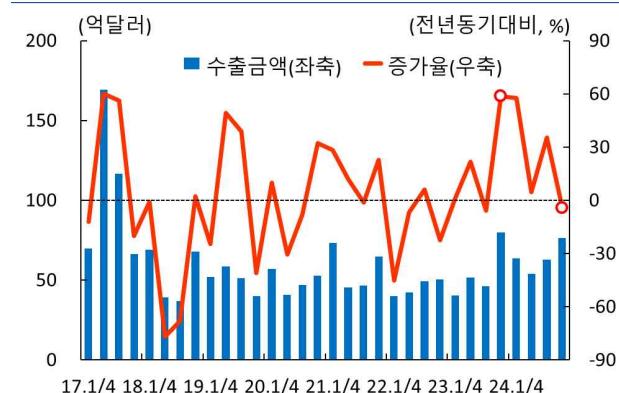
[그림 5.4] 전국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생산지수



자료: 통계청

#### 선박 수출금액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

[그림 5.5] 선박 수출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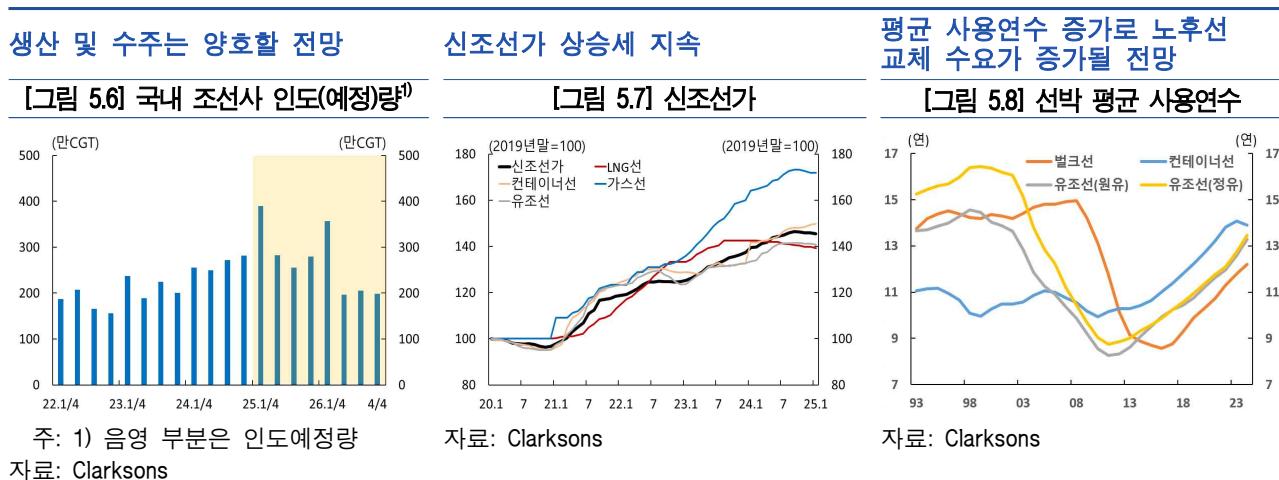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향후 전망

**4. 향후 조선업은 경기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선별 수주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존 선박의 노후화,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신규 발주가 확대됨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추진선,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VLAC) 등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선별 수주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조선가 상승세 지속, 후판 가격 하향 안정화 등의 영향으로 국내 조선사들의 수익성도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5.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 해군력 확충 노력, 중국 조선업 견제에 따른 반사이익 등은 국내 조선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신규 액화천연가스 생산 프로젝트의 재개 시점<sup>67)</sup>에 맞추어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 및 운반선의 발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미해군의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서 국내 조선사의 참여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국 조선소의 블랙리스트 등재 등 중국 조선업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본격화<sup>68)</sup>될 경우 국내 조선사의 신규 수주 비중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6. 인도물량 증가에 따른 인력난 심화 및 중국과의 경쟁 등은 중기적 리스크 요인이다.** 조선업의 인력 사정은 외국인 노동자 채용<sup>69)</sup>에도 불구하고 향후 인도물량 증가 등으로 다소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sup>70)</sup> 또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경쟁 심화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다.<sup>71)</sup>



67)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중단되었던 신규 액화천연가스 수출 허가를 재개하였다.(2025.1월)

68) 미 국방부는 중국의 134개 조선소를 ‘중국 군사 기업(블랙리스트)’으로 지정하고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한 항구 이용료 부과를 주장하였으며,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 시장의 유일한 경쟁자인 중국 위순(WISON) 조선소를 러시아 관련 제재 대상에 등재하였다.(2025.1월)

69) 정부는 E7-1 전문인력 비자를 확대하고 조선업에 1,3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할 계획이다.(2024.12월, 2024년도 5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70) 정부의 지속적인 충원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조선업계의 미충원율은 14.7%로 전 산업 평균인 8.3%를 큰 폭 상회하였다.(조선·해양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71) 중국의 글로벌 신규수주 시장점유율은 2023년 59.6%에서 2024년 70.6%로 확대된 반면, 국내 조선사의 신규수주 시장 점유율은 동기간 20.4%에서 16.7%로 하락하였다.(Clarksons)

## 참고문헌

스틸데일리, “DB센터>국내가격>후판(Plate)”

조선비즈(2024.07.23.), “中조선, 넘치는 일감에 대규모 투자... 韓은 선택과 집중”

조선·해양 인적자원개발위원회(2024.12), “2024 조선·해양산업 인력현황 보고서”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하나금융연구소(2024.10.), “2025년 일반산업 전망 - 괴벗의 훈풍에도 길어지는 저성장의 그림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금액(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한국은행 경남본부, “경남지역 기업경기조사”

Clarksons, “신규수주·수주잔량·신조선가 통계”

Clarksons, “Decarbonising shipping - Informing solutions that help reduce carbon emissions across the maritime industry”

VI

## 디스플레이 [대전세종충남본부 조광래 과장, 허인지 조사역]

- 2024년 4/4분기 중 디스플레이 생산과 수출은 OLED와 LCD 모두 부진하면서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 향후 디스플레이 산업 업황은 IT용 OLED 채용률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형 LCD 패널 관련 구조조정 지속, 글로벌 업체 간 경쟁 심화 등으로 다소 부진할 전망이다.

### 최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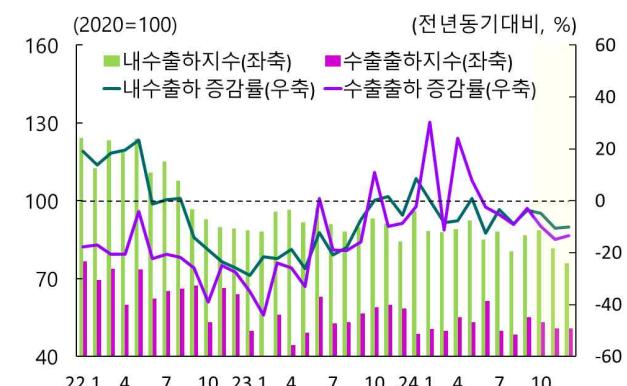
1. 2024년 4/4분기 중 디스플레이 생산은 대형 LCD 패널 관련 구조조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방산업의 수요가 둔화되면서 감소폭(전년동기대비 -6.7%)이 확대되었다. 디스플레이 생산은 국내 업체가 LCD 패널 생산 비중을 축소<sup>72)</sup>하는 상황에서 주요 고객사의 신형 스마트폰 판매 부진<sup>73)</sup>, 중국 기업과의 경쟁 심화<sup>74)</sup>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였다.

디스플레이 생산은 감소폭이 확대

국내 업체의 패널 내수출하, 수출출하는 모두 감소폭이 확대

[그림 6.1] 디스플레이 생산지수<sup>1)</sup>

주: 1) 전자 부품 제조업 기준  
자료: 통계청

[그림 6.2] 디스플레이 출하지수<sup>1)</sup>

주: 1) 전자 부품 제조업 기준  
자료: 통계청

72) LG디스플레이는 기존 LCD 생산 비중을 축소하는 한편 OLED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고 있으며 2024년 4/4분기 중 OLED 제품의 매출 비중이 60%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다.(LG디스플레이 2024년 4/4분기 실적발표)

73) 애플 신형 아이폰16 시리즈의 판매가 전작인 아이폰15 시리즈에 비해 부진하면서 2024년 10~11월 중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년동기대비 5.1% 감소하였다.(Counterpoint)

74) 스마트폰에 주로 탑재되는 중소형 OLED 패널 출하량 기준으로 중국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은 2023년 4/4분기 41.5%에서 2024년 4/4분기 47.8%로 확대되었으나, 국내 기업(삼성디스플레이 및 LG디스플레이)은 같은 기간 57.2%에서 51.4%로 하락하였다.(Omdia)

**2. 수출은 LCD와 OLED 모두 부진하면서 감소세(전년동기대비 -16.9%)가 지속되었다.** 디스플레이 수출은 LCD 패널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신형 스마트폰 판매 부진으로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수요가 감소<sup>75)</sup>하고 OLED TV와 OLED 탑재 태블릿PC<sup>76)</sup> 등 고급형 제품에 대한 수요도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 그쳐<sup>77)</sup> 전분기에 이어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한편 국가별로는 對베트남 수출(전체 수출의 60.4%를 차지)의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 對중국 수출(26.7%)은 3/4분기까지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4/4분기 중 감소로 전환하였다.

디스플레이 수출은 LCD와 OLED 모두 부진하면서  
감소세 지속

[그림 6.3] 디스플레이 패널별 수출 증가율<sup>1)</sup>

주: 1)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MTI 836)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對베트남 수출의 감소폭이 확대된 가운데 對중국  
수출도 감소 전환

[표 6.1] 디스플레이 수출 국가별 증가율<sup>1,2)</sup>

| 분류              | 24.2Q | 3Q    | 4Q    |
|-----------------|-------|-------|-------|
| 디스플레이           | 19.4  | -2.3  | -16.9 |
| (베트남)<br>[60.4] | 11.2  | -11.7 | -23.9 |
| (중국)<br>[26.7]  | 26.8  | 26.6  | -2.2  |

주: 1)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MTI 836) 기준

2) []내는 2024년 4/4분기 중 수출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3. 패널 가격은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대형 OLED 패널의 경우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중소형 OLED 패널 가격은 신형 스마트폰 출시 효과 지속 등으로 상승세(전년동기대비 +2.2%, 전분기대비 +5.6%)를 이어갔으나 대형 OLED 패널 가격은 고급형 TV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부진(전년동기대비 -5.1%, 전분기대비 0.0%)하였다. 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형 LCD 패널은 글로벌 수요 증가<sup>78)</sup> 등으로 양호한 가격 흐름(전년동기대비 1.6%, 전분기대비 0.0%)을 보였다.

75) 스마트폰용 OLED 패널의 글로벌 출하량은 증가세(1/4분기 +39.1% → 2/4분기 +57.9% → 3/4분기 +28.0%)를 이어왔으나 4/4분기(-1.5%) 중 감소로 전환하였다.(Omdia)

76) 시장조사기관 DSCC는 애플 아이패드 프로에 탑재되는 OLED 패널 출하량(2024년 기준)을 당초 1,000만대로 전망하였으나 2024년 10월 중 전망치를 670만대로 줄였으며 12월 중에는 570만대로 재차 하향 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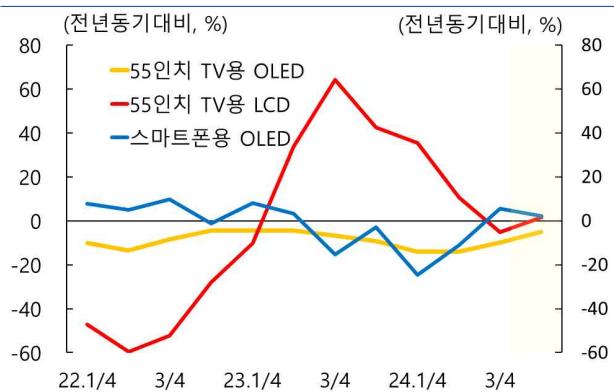
77) 국내 기업은 대형 디스플레이 패널 내 OLED 비중(2024년 4/4분기 기준)이 21.8%로 높은 수준이나 글로벌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OLED 비중은 2022년 2.3% → 2023년 1.9% → 2024년 3.3%로 낮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78) 2024년 4/4분기 중 대형 LCD 패널 시장에서 글로벌 출하량이 전년동기대비 9.0% 증가하였다. 다만 10.4%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LG디스플레이의 경우 사업구조 개편 등의 영향으로 출하량이 15.0% 감소하였다.(Omdia)

**4. 2024년 4/4분기 중 국내 디스플레이 대기업의 영업실적(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업체별로 상이한 흐름을 보였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양호한 영업이익률을 지속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스마트폰 수요 부진, 경쟁 심화 등으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축소(전년동기대비 각각 -16.1% 및 -55.3%)되었다. LG디스플레이의 경우 연말 성수기 TV 판매 증가, OLED 중심의 사업구조 개편 등으로 매출액이 개선(전년동기대비 +5.9%)되는 한편 고강도 원자재 절감 및 운영 효율화 등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1년 만에 흑자로 전환되었다.

#### 전반적으로 패널 가격 소폭 상승, 대형 OLED 패널은 하락세 지속

[그림 6.4]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 증가율



자료: Omdia, KDIA

#### 국내 디스플레이 대기업의 실적은 업체별로 상이한 흐름

[표 6.1] 주요 디스플레이 대기업 실적

| 분류 | (조원, %)     |             |             |             |             |
|----|-------------|-------------|-------------|-------------|-------------|
|    | 2023<br>4/4 | 2023<br>1/4 | 2024<br>2/4 | 2024<br>3/4 | 2024<br>4/4 |
| 삼성 | 매출액         | 9.7         | 5.4         | 7.6         | 8.0         |
|    | 영업이익        | 2.0         | 0.3         | 1.0         | 1.5         |
|    | 영업이익률       | 20.8        | 6.3         | 13.2        | 18.9        |
| LG | 매출액         | 7.4         | 5.3         | 6.7         | 6.8         |
|    | 영업이익        | 0.1         | -0.5        | -0.1        | -0.1        |
|    | 영업이익률       | 1.8         | -8.9        | -1.4        | -1.2        |

자료: 각사 홈페이지

## 향후 전망

**5. 향후 디스플레이 산업 업황은 IT용 OLED 채용률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형 LCD 패널 관련 구조조정 지속<sup>79)</sup>, 글로벌 업체 간 경쟁 심화 등으로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sup>80)</sup>된다.** 고가형 IT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애국 소비 등 자국 제품 선호 추세가 확대<sup>81)</sup>되고 있어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의 시장 점유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성장경로는 고성능 OLED 탑재 제품의 판매 흐름, 미국 행정부의 중국산 디스플레이 패널 수입 제재 여부<sup>82)</sup> 등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79) LG디스플레이가 중국 광저우에 보유하고 있던 대형 LCD 패널 및 모듈 공장은 중국 차이나스타(CSOT)가 인수할 예정이며 2025년 3월까지 매각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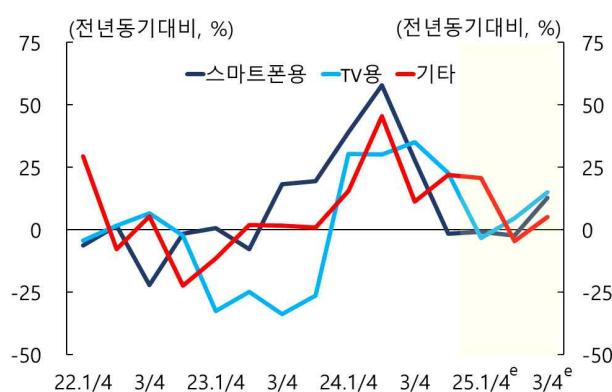
80) 삼성증권은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을 대표하는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2025년 1/4분기 중 매출규모가 전분기 대비 각각 -18.1%, -30.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81) 중국 정부는 2025년 1월 20일부터 소비 진작 정책(以舊換新)의 일환으로 스마트폰·태블릿PC 등에 대한 신규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자국제품 선호 영향으로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82) 2024년 9월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는 BOE 등 중국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를 ‘중국 군사기업 목록’에 포함 시켜 제재하는 방안을 미국 국방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6.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저전력·고화질·고성능 제품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시장 선점을 위한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대형 LCD 패널 관련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OLED 생산 비중이 늘고 있으며 8.6세대 OLED 관련 대규모 설비구축<sup>83)</sup>이 계획대로<sup>84)</sup> 진행 중이다. 또한 최상위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TV 패널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IT/자동차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사업 다각화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디스플레이 산업은 IT용 OLED 채용률 확대에도 불구하고 LCD 패널 감소로 다소 부진할 전망

[그림 6.5] 글로벌 OLED 패널 출하<sup>1)</sup> 전망

주: 1) 수량 기준 2) 음영 부분은 전망치 기준  
자료: Omdia

고성능 IT 제품의 OLED 채용률 확대에 대응하여 신규 설비투자를 추진 중

[표 6.2] 제품별 OLED 시장 전망

| 분류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
| 스마트폰 | 735.9<br>(18.3) | 765.1<br>(4.0) | 793.1<br>(3.7) | 821.5<br>(3.6) | 852.1<br>(3.7) |
| TV   | 6.8<br>(28.9)   | 7.5<br>(10.6)  | 8.1<br>(6.8)   | 8.6<br>(7.0)   | 9.1<br>(5.3)   |
| 노트북  | 5.3<br>(29.9)   | 7.0<br>(32.8)  | 14.0<br>(98.7) | 27.6<br>(97.4) | 40.8<br>(47.5) |
| 태블릿  | 12.1<br>(221.1) | 16.8<br>(38.3) | 18.3<br>(9.4)  | 20.9<br>(13.8) | 26.3<br>(25.8) |

주: 1) 2025년 1월말 전망 기준  
자료: Omdia, KDIA

83) 2023년 4월 삼성디스플레이는 8.6세대 IT OLED 패널 생산 공정 고도화를 위한 4.1조원 규모 설비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이다.

84) 삼성디스플레이는 2024년 3/4분기 실적발표에서 8.6세대 IT OLED 관련 주요 설비의 반입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수입액(전년동기대비)은 2024년 1/4분기 +80.6% → 2/4분기 +4,551.1% → 3/4분기 +200.4%로 증가하다가 4/4분기 중 17.6% 감소하는 모습이다.

## 참고문헌

삼성전자(2025),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자료”

삼성증권(2025), “Company update: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산업연구원(2024), “2025년 13대 주력산업 전망”

산업통상자원부(2025), “2024년 연간 및 12월 수출입 동향”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2024), “디스플레이산업 주요 통계”

한국무역협회, “K-stat 무역통계”

Counterpoint(2024), “Mobile Handset Shipment Forecast”

LG디스플레이(2025),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자료”

Omdia(2024), “Large Area Display Market Tracker”

Omdia(2025), “PriceWise”

Omdia(2025), “Small Medium Display Market Tracker”

VII

## 휴대폰 (대구경북본부 정유정 조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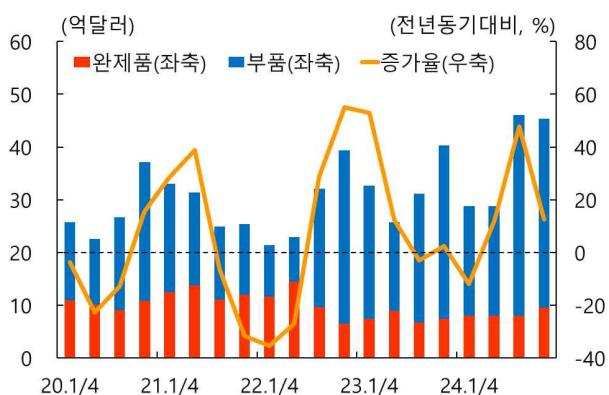
- 2024년 4/4분기 중 휴대폰 및 부품 수출은 기저효과 등으로 부품 수출이 크게 둔화되면서 전분기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3/4분기 +47.7% → 4/4분기 +12.4%)되었다.
- 향후 휴대폰 및 부품 수출은 AI 탑재 스마트폰과 고사양 부품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증가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 최근 동향

1. 2024년 4/4분기 중 휴대폰 및 부품 수출은 기저효과 등으로 부품 수출이 크게 둔화되면서 전분기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3/4분기 +47.7% → 4/4분기 +12.4%)되었다. 휴대폰 완제품의 경우 AI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국내 생산이 증가한 가운데 EU를 비롯한 일부 선진국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출이 호전되었다. 부품 수출은 미국, 인도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2024.3/4분기 중 대폭 늘었던 중국 수출(3/4분기 +55.4% → 4/4분기 +12.0%)이 둔화되면서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특히 고가 부품의 중국 수출 둔화는 애플사의 중국 내 판매 부진 등에 주로 기인한다.

#### 휴대폰 및 부품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2.4% 증가

[그림 7.1] 휴대폰 및 부품 수출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완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

[표 7.1] 2024.4/4분기 휴대폰 및 부품 수출

|                  | 완제품  |         | 부품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미국               | 1.78 | (-33.8) | 0.63  | (73.2) |
| EU <sup>1)</sup> | 5.85 | (68.3)  | 0.81  | (16.8) |
| 중국 <sup>2)</sup> | 0.47 | (3.3)   | 26.84 | (12.0) |
| 베트남              | 0.04 | (-45.3) | 5.63  | (7.7)  |
| 인도               | 0.01 | (-6.9)  | 0.61  | (70.4) |
| 전체               | 9.54 | (28.7)  | 35.77 | (8.8)  |

주: 1) 영국 포함, 2) 홍콩, 마카오 포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 4/4분기 중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전년동기대비)은 전분기 증가에서 소폭 감소로 전환(3/4분기 +2.4% → 4/4분기 -0.2%)되었으나, 삼성전자 출하량은 중저가폰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2.4% → +5.3%)하였다.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의 경우 중남미, 인도 등의 시장에서는 수요가 견조하였으나 북미, 유럽 및 중국 시장에서는 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전년동

기대비 0.2% 감소하였다. 2024년 4/4분기 중 주요 제조사별 스마트폰 출하량을 살펴보면, 애플은 중남미, 인도 및 일본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3분기 연속 출하량이 증가하였으며 세계시장점유율도 상승(2023.4/4분기 22.9% → 2024.4/4분기 23.6%)하였다. 삼성전자 출하량은 기저효과로 전분기 2.4% 감소에서 5.3%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세계시장점유율도 0.9%p 상승(16.4% → 17.3%)하였다. 한편 화웨이(중국 프리미엄 스마트폰 생산업체)는 중국내 점유율이 확대되었으나 고사양 부품조달에 제약을 받아 여타 시장에서 부진하면서 세계시장점유율이 하락(8.9% → 8.4%)하였다. 오포·비보·샤오미의 세계시장점유율은 상승(26.1% → 26.7%)하였다.

###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글로벌 출하량은 전년동기대비 5.3% 증가

[표 7.2] 주요 업체별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

|           | (전년동기대비, %) |        |       |       |       |        |       |      |      |        |      |      |      |
|-----------|-------------|--------|-------|-------|-------|--------|-------|------|------|--------|------|------|------|
|           | 21.4/4      | 22.1/4 | 2/4   | 3/4   | 4/4   | 23.1/4 | 2/4   | 3/4  | 4/4  | 24.1/4 | 2/4  | 3/4  | 4/4  |
| 삼성        | 10.4        | -2.8   | 8.5   | -7.2  | -15.5 | -18.6  | -14.4 | -7.6 | -9.1 | -1.0   | 0.9  | -2.4 | 5.3  |
| 애플        | -0.5        | -0.8   | -4.9  | 2.5   | -14.1 | -1.7   | -2.6  | -0.6 | 5.7  | -12.8  | 0.4  | 4.7  | 2.9  |
| 오포·비보·샤오미 | -5.1        | -24.3  | -23.7 | -17.5 | -20.5 | -18.4  | -14.6 | -5.8 | 1.1  | 11.1   | 17.3 | 8.5  | 2.4  |
| 화웨이 · 아너  | -37.9       | -1.8   | 24.5  | 4.3   | -8.6  | -4.5   | 1.4   | 26.2 | 53.2 | 45.0   | 35.8 | 4.6  | -6.0 |
| 전체        | -5.9        | -8.0   | -8.9  | -11.7 | -18.5 | -14.1  | -9.0  | -0.7 | 6.8  | 6.0    | 7.9  | 2.4  | -0.2 |

자료: Counter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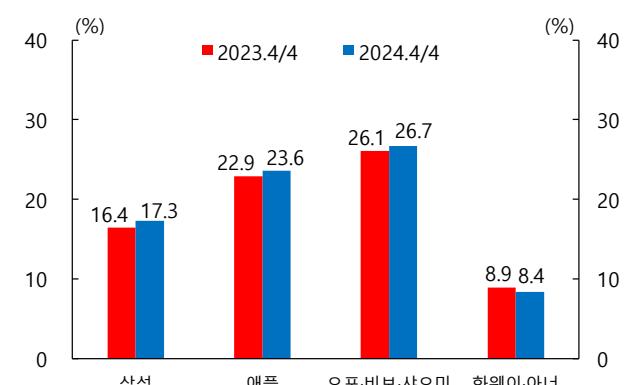
###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

삼성, 애플 및 OVX<sup>1)</sup>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상승하고 화웨이는 하락

[그림 7.2]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



[그림 7.3] 주요 업체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자료: Counterpoint

주: 1) 오포(Oppo), 비보(Vivo), 샤오미(Xiao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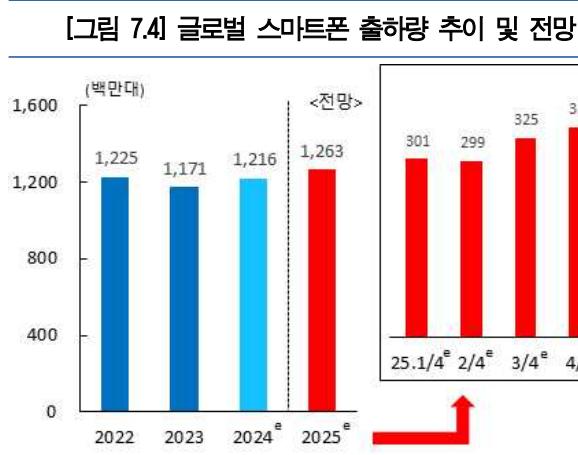
자료: Counterpoint

## 향후 전망

**3. 향후 휴대폰 및 부품 수출은 AI 탑재 스마트폰과 고사양 부품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증가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휴대폰 완제품 수출의 경우 프리미엄 휴대폰의 가격대 다양화, 삼성전자의 주력 모델인 갤럭시S25 시리즈 출시<sup>85)</sup> 등이 수출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품 수출의 경우 중국의 보조금 지급 정책<sup>86)</sup> 등이 우호적인 여건으로 일부 작용할 수 있겠으나, 2024.2/4분기부터 4/4분기에 걸쳐 대폭 늘어난 수출량이 역기저효과로 작용하면서 수출 증가폭이 전년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향후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글로벌 출하량은 AI 탑재 스마트폰 위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IT 시장조사업체인 카운터포인트리서치가 2024년 9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의 약 60%는 스마트폰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AI 스마트폰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북미, 서유럽 등 주요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국내 기업과 중국 업체와의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 시장에서도 자국 업체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이 계속되면서 국내 기업의 수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주요 시장조사 업체<sup>87)</sup>는 2025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에 비해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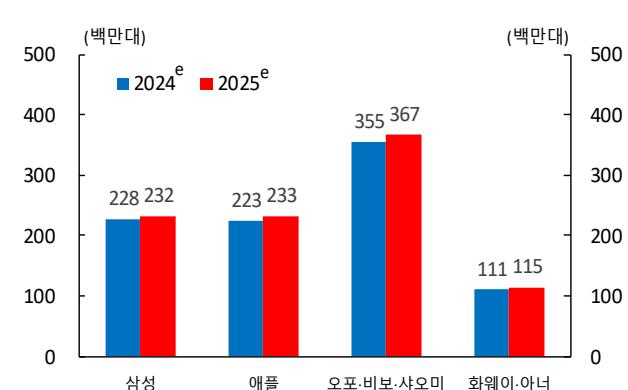
글로벌 휴대폰 출하량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할 전망



자료: Counterpoint

삼성, 애플은 프리미엄 제품군에서의, 화웨이 및 OVX는 중국 내수 시장에서 성장 전망

[그림 7.5] 주요 스마트폰 업체별 생산량 전망



자료: Counterpoint

85) 삼성전자는 2025년 1월 23일(한국시간 기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S25, S25+, S25울트라를 선공개하고 2월 7일 출시하였다. S25시리즈는 AI기능이 강화되고 폼팩터의 편의성이 향상된 것이 특징이며, 국내 사전 판매량이 갤럭시 S시리즈 기준 사상 최대인 130만대를 기록했다.

86) 중국에서는 내수 진작을 위해 2025년 1월 20일부터 4월까지 6,000위안(약 120만원) 미만의 휴대폰에 대하여 물건값의 15%, 최대 1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87) 카운터포인트리서치(2025.1.31.)는 2025년 중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2024년(+4%) 대비 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 참고문헌

김록호(2024), 11월 스마트폰 판매량 잠정치: 인도만 전년동월대비 증가, 하나증권

산업통상자원부(2024), 10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현황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4), 11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현황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4), 2024년 연간 및 12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현황 보도자료

오강호(2025), 2025 갤럭시 언팩, 신한투자증권

이창민(2024), 10월 스마트폰 판매: 견조했던 판매 흐름, KB증권

Counterpoint(2025), "Market Pulse OEM Sales"

Counterpoint(2025), "Mobile Handset Shipment Forecast"

Counterpoint(2025), "Mobile Handset Shipment Forecast by Brand Region(Long Term)"

## VIII 이차전지 [충북본부 김상미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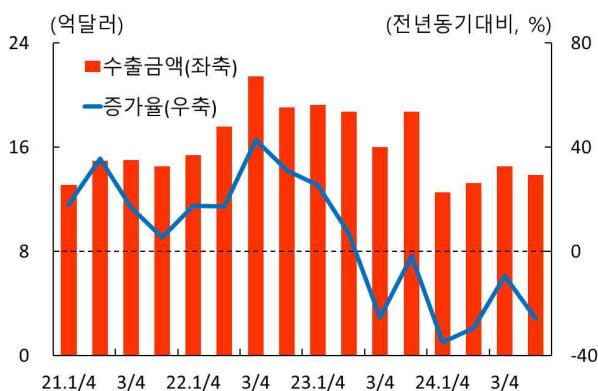
- 2024년 4/4분기 중 이차전지 및 양극재 수출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 부진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이차전지의 경우 국가별로는 미국, 용도별로는 ESS 용에 대한 수출이 감소로 전환되며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 양극재는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졌다.
- 2025년 1/4분기 중 이차전지 및 양극재 수출은 전기차 시장의 캐즘 지속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 정책 변동 가능성 및 유럽의 환경규제 완화 논의 제기 등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회복세 전환은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 동향

- 2024년 4/4분기 중 이차전지 및 양극재(이차전지 주요 소재) 수출은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이차전지 및 양극재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5.9%, 36.7% 줄어들며 2023년 3/4분기 이후의 감소세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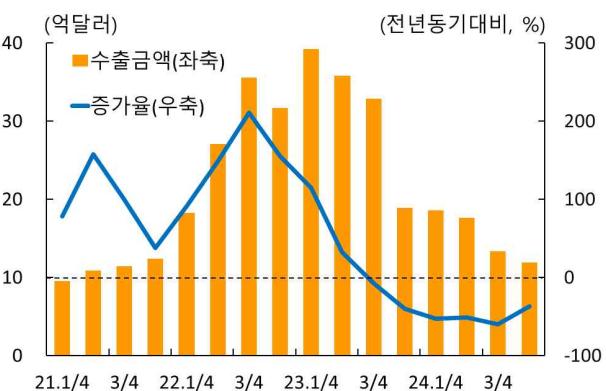
이차전지 및 양극재(이차전지 주요 소재) 수출은 2023년 3/4분기 이후 감소세가 지속

[그림 8.1] 이차전지 수출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그림 8.2] 양극재 수출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이차전지 수출(2024년 3/4분기 중 -9.3% → 4/4분기 중 -25.9%)은 미국 수출이 감소로 전환되며 전분기보다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우리나라 이차전지 수출의 가장 큰 비중(88)을 차지하는 미국 수출은 4/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22.9% 줄어들며 전분기(+11.2%)의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었다. 유럽 수출도 46.9% 줄어들며 전분기(-38.5%)에 이어 큰 폭의 감소세

88) 2024년 중 우리나라 이차전지 수출의 국가별 비중은 미국 55.3%, 유럽 16.1% 등의 순이다.

가 지속되었다. 용도별로 보면, EV용은 71.2% 줄어들며 전분기(-71.1%)에 이어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되었고, ESS용은 3.6% 줄어들며 전분기(+70.8%)의 큰 폭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었다.

**3. 양극재 수출(-59.5% → -36.7%)은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4/4분기 중 유럽과 중국에 대한 양극재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37.1%, 51.2% 줄어들며 전분기(각각 -50.9%, -68.9%)에 이어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졌다. 반면 미국 수출은 57.1% 늘어나며 전분기(-77.1%)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었다.

| 미국 수출이 감소로 전환                              |            | ESS용 수출이 감소로 전환                            |     | 유럽과 중국에 대한 양극재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               |       |      |         |      |         |
|--|------------|--|-----|---|-------|------|---------|------|---------|
| [표 8.1] 우리나라의 국가별<br>이차전지 수출 <sup>1)</sup> |            | [표 8.2] 우리나라의 용도별<br>이차전지 수출 <sup>1)</sup> |     | [표 8.3] 우리나라의 국가별<br>양극재 수출 <sup>1)</sup> |       |      |         |      |         |
|  |            |  |     | (억달러, %)                                  |       |      |         |      |         |
|  | 2024.3/4분기 | 4/4분기                                      |     | 2024.3/4분기                                | 4/4분기 |      |         |      |         |
| 미국   | 9.6        | (+11.2)                                    | 8.7 | (-22.9)                                   | 이차전지  | 14.5 | (-9.3)  | 13.9 | (-25.9) |
| 유럽   | 1.9        | (-38.5)                                    | 1.6 | (-46.9)                                   | EV    | 1.9  | (-71.1) | 1.5  | (-71.2) |
| 중국   | 0.9        | (+27.1)                                    | 1.3 | (+18.8)                                   | ESS   | 8.9  | (+70.8) | 8.8  | (-3.6)  |

주: 1)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주: 1)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주: 1)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4. 국내 이차전지 및 양극재 생산 주요 기업의 영업실적은 전기차 시장의 캐즘 지속<sup>89)</sup>의 영향으로 부진이 이어졌다.** 4/4분기 중 이차전지 제조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의 경우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19.4%, 32.4% 줄어들며 전분기(각각 -16.4%, -29.8%)보다 감소폭이 확대된 가운데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되었다.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도 매출액이 56.3% 줄어들며 전분기(-71.1%)의 큰 폭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영업이익은 2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였다.

#### 국내 주요 기업의 영업실적은 부진 지속

[표 8.4] 국내 주요 기업 실적<sup>1)</sup>

| LG에너지솔루션 |          | 삼성SDI    |          | 에코프로비엠 |          |      |          |
|----------|----------|----------|----------|--------|----------|------|----------|
|          |          | (천억원, %) |          |        |          |      |          |
| 매출액      | 24.3/4분기 | 68.8     | (-16.4)  | 39.4   | (-29.8)  | 5.2  | (-71.1)  |
|          | 24.4/4분기 | 64.5     | (-19.4)  | 37.6   | (-32.4)  | 5.2  | (-56.3)  |
| 영업이익     | 24.3/4분기 | 4.5      | (-38.7)  | 1.3    | (-72.1)  | -0.4 | (-189.8) |
|          | 24.4/4분기 | -2.3     | (-166.9) | -2.6   | (-186.9) | -0.1 | (-87.6)  |

주: 1)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각사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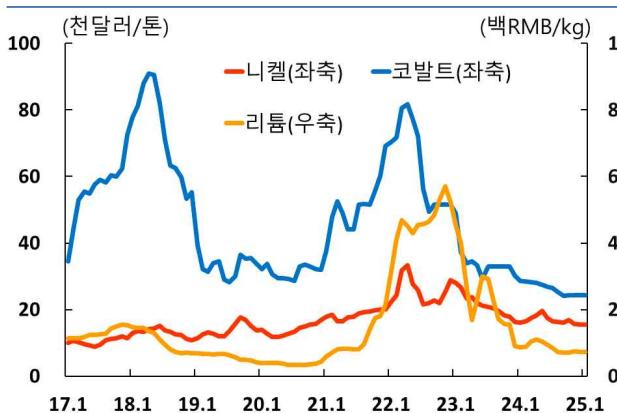
89) 전기차 시장의 캐즘(Chasm, 일시적 수요 정체)이 지속되는 이유는 충전시설 등의 인프라가 부족하고 가격대가 내연기관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2024년 초 북미지역 한파에 따른 배터리 성능 하락 현상, 전기차 화재로 인한 불안감 등이 전기차 수요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향후 전망

5. 2025년 1/4분기 중에도 이차전지 및 양극재의 수출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광물 가격이 하락<sup>90)</sup>하면서 이차전지 및 양극재의 판매가격이 하락<sup>91)</sup>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데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도 더욱 둔화<sup>92)</sup>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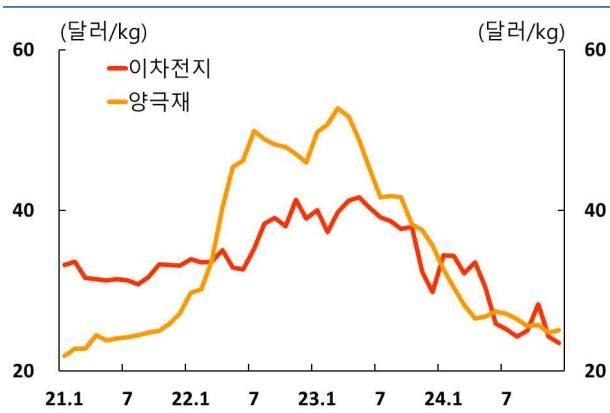
**주요 광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차전지와 양극재의 판매가격도 하락세가 지속**

[그림 8.3] 주요 광물 가격



자료: 한국자원정보

[그림 8.4] 이차전지 및 양극재 판매가격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6.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이차전지 관련 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당분간 이차전지 산업의 성장세 둔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전기차 의무화 정책(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50% 전기차로 전환) 폐지 선언<sup>1.20)</sup> 및 친환경 소비자 세제 혜택 폐지 가능성 등이 전기차 및 이차전지 시장 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도 CO<sub>2</sub> 배출 규제 강화 정책 시행<sup>93)</sup>에도 불구하고 환경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제기<sup>94)</sup>되며 관련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이차전지 제조업체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주로 생산하고 있어 시장 점유율 하락이 우려<sup>95)</sup>됨에 따라 가격이 저렴한 리튬인산철(LFP)배터리 생산을 계획<sup>96)</sup>하고 있다.

90) 최근 핵심광물의 가격 하락은 공급 과잉에 기인한다. 세계 최대 코발트 생산국인 콩고의 2024년 중 코발트 생산량이 38.9% 늘었으며, 2위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코발트 생산량도 22.0% 증가하였다.

91) 이차전지 가격(kg당)은 2024년 1월 34.4달러 → 6월 25.9달러 → 12월 23.5달러로 하락하였으며, 양극재 가격도 같은 기간 32.6달러 → 26.8달러 → 25.1달러로 하락하였다.

92) 국제 에너지 기구(EIA)는 현재의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경우(Stated Policies Scenario) 글로벌 전기차 재고(stock) 증가율이 2024년 +43.4%에서 2030년 +21.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신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증가율(중국 제외)은 2021년 +77.0%, 2023년 +32.1%, 2024년 1~11월 +6.3%(전년동기대비)로 둔화되었다(SNE Research).

93) 2025년부터 EU는 신차의 평균 CO<sub>2</sub> 배출량 기준(93.6g/km) 초과시 g당 95유로(약 14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94) EU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하였으나 일부 회원국 및 유럽의회 우파 성향 정당들이 시행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판매부진을 겪는 자동차 업계 지원을 위해 EU집행위원장이 ‘액션플랜’ 마련(3월 5일 까지 준비)을 지시하면서 배출 규제의 한시적 유예 혹은 완화 가능성에 제기되고 있다.

95) 2024년 1~11월 중 글로벌(중국 제외)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사용량이 전년동기대비 13.3% 증가하였으나 국내 3사의 배터리 점유율은 45.6%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p 하락하였다.

96) LG에너지솔루션이 2025년 11월부터 LFP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인 가운데, 삼성SDI도 LFP배터리 생산시설 구축을 완료(24.9월)하였으며, 에코프로 등은 LFP배터리 관련 양극재 공급을 준비 중이다.

## 참고문헌

박진수(2025), “트럼프 취임 후 행정명령과 이차전지 산업”, 신영증권

주민우(2025), “EV 정책 변화 점검(미국, 유럽)”, NH투자증권

조철(2024), “전기차와 배터리산업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산업연구원

황경인(2024), “최근 배터리 업황 긴급 진단: 부진 원인과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SNE Research(2025), “2024년 1~11월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 약 1,559만대 전년대비 25.9% 성장”